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정 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2017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김 찬 미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권 정 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김 찬 미

# 인 준 서

김찬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 ..... (인)

심 사 위 원 ..... (인)

심 사 위 원 .....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희망 어린이집 사랑반 담임교사인 연구자가 만 2세반 영아를 대상으로 한 미술활동에 대한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만 2세 사랑반 미술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미술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영아의 변화과정을 통해 만 2세 학급의 미술활동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만 2세 사랑반 미술활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만 2세 사랑반 미술활동의 실행과정은 어떠한가?
3. 만 2세 사랑반 미술활동에서 나타난 영아의 변화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희망 어린이집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에 대해 연구자인 교사가 인식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연구이다. 2016년 5월 16일부터 2016년 9월 19일까지 18주 동안 계획과 실행 및 평가를 거듭하면서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미술활동을 개선해 나갔다.

1단계는 문제점 파악 및 실행방안 모색, 2단계는 1차 실행 및 평가. 3단계는 2차 실행 및 평가로 진행하였으며 매주 연구자는 저널을 기록하여 실행된 미술활동을 분석하고 진행 될 미술활동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만 2세 사랑반 영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미술활동을 관찰, 비디오 녹화, 저널 작성, 사진촬영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2세 사랑반 영아들의 미술활동의 문제점으로는 영아가 미술활동에

대해 소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 미술영역에 대한 영아의 흥미가 낮다는 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1차 실행에서는 친숙한 재료를 통한 감각적 탐색활동 및 자료제공과, 미술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재구성하였다. 영아들은 친숙한 미술재료를 탐색하며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미술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자 보다 적극적으로 미술활동에 호기심을 보이는 모습이었다. 2차 실행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한 미술활동과 입체 표현활동 및 감상활동을 진행하였다. 진행되는 미술활동의 특성과 영아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환경을 재구성하였다. 영아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호기심을 보이며 미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다양한 재료를 자발적으로 탐색하였고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촉진되었다.

셋째, 사랑반 미술활동 개선과정에서 나타난 영아들의 변화는 재료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선생님과 함께 표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는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확대되었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4
3. 용어의 정의 .....	4
1) 사랑반의 미술활동 .....	4
4. 연구자 .....	4
<b>II. 이론적 배경</b> .....	7
1. 영아의 미술발달 특성 .....	7
2. 영아 미술활동 .....	10
1) 영아 미술활동의 필요성.....	10
2) 표준보육과정과 영아 미술활동 .....	13
3. 영아 미술활동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	15
1) 영아 미술활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구성 .....	15
2) 영아 미술활동 지도시 교사의 역할 .....	17
4. 선행연구 .....	19
<b>III. 연구 방법</b> .....	23
1. 실행 연구 .....	23

2. 연구 참여자 .....	24
1) 희망어린이집 .....	24
2) 만 2세 사랑반 .....	24
3) 사랑반 영아들 .....	26
3. 연구 절차 .....	28
1) 1단계: 문제점 파악 .....	30
2) 2단계: 1차 실행 및 평가 .....	30
3) 3단계: 2차 실행 및 평가 .....	31
4. 자료수집 방법 .....	32
1) 참여 관찰 .....	32
2) 사진과 비디오 촬영 .....	33
3) 저널 쓰기 .....	34
5. 자료분석 .....	34
<b>IV. 연구 결과</b> .....	<b>36</b>
1.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 .....	36
1) 미술활동에 대한 영아의 소극적인 반응 .....	36
2) 미술영역에 대한 낮은 관심도 .....	39
2.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 개선을 위한 1차 실행 .....	40
1) 친숙한 재료를 통한 감각적 탐색활동 및 자료제공 .....	41
2) 미술영역의 재구성 .....	47
3.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 개선을 위한 1차 실행평가 .....	50
4.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 개선을 위한 2차 실행 .....	52
1)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한 미술활동 및 자료제공 .....	53
2) 입체 표현활동 및 감상활동 .....	60
3) 미술활동을 위한 환경의 재구성 .....	64

5. 만 2세 사랑반 미술활동 개선을 위한 2차 실행평가 .....	67
6. 만 2세 사랑반 미술활동에서 나타난 영아의 변화 .....	69
1) 재료에 대한 관심 보이기 .....	69
2) 선생님과 함께 표현하기 .....	71
3) 자발적으로 표현하기 .....	73
4) 친구와 상호작용하기 .....	74
<b>V. 논의 및 결론 .....</b>	<b>77</b>
1. 논의 및 결론 .....	77
1)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 및 개선과정 .....	77
2)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영아의 변화 ..	79
2. 제 언 .....	80

## 참고문헌

## ABSTRACT

## 부 록

## 표 목 차

<표 1> 예술경험별 내용범주 세부내용 .....	13
<표 2> 사랑반의 하루일과 .....	25
<표 3> 연구일정 및 절차 .....	29
<표 4> 1차 실행 내용 .....	31
<표 5> 2차 실행 내용 .....	32

## 그림 목 차

[그림 1] ‘Kemmis와 McTaggart(1988)의 자기 반성적 실행연구 사이클 모형 .....	29
--	----

## 사 진 목 차

<사진 1> 무질서한 난화 .....	10
<사진 2> 명명하는 난화 .....	10
<사진 3> 물감을 붙어보는 영아들 .....	37
<사진 4> 가위와 풀을 탐색하는 영아들 .....	43
<사진 5> 촉감을 활용한 물감 탐색활동 .....	45
<사진 6> 기존의 미술영역 .....	49
<사진 7> 미술영역의 재구성 .....	49
<사진 8> 야채 도장을 찍는 영아들 .....	55
<사진 9> 생크림으로 그림을 그리는 영아들 .....	56
<사진 10> 커피 여과지에 싸인펜으로 끼적이는 영아들 .....	58
<사진 11> 밀가루 반죽으로 놀이하는 영아들 .....	59
<사진 12> 플레이콘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영아들 ..	62
<사진 13> 점토로 표현하는 영아들 .....	64
<사진 14>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탐색하는 영아들 .....	66
<사진 15> 폐품을 활용하여 입체 표현하는 영아 .....	6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표현의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자기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싶어한다.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미술은 사물에 대한 명확한 관찰력을 발달시켜 주고, 이해력과 정신력을 키워준다(강숙현, 이민경, 김진화, 2006). 영유아도 강한 자기표현의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느낌과 생각, 경험 등을 숨김없이 표출하려 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미술활동을 통하여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영유아 성장에 도움이 된다(김은영, 2014).

영아기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언어로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때문에 영아는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며, 언어보다 더욱 편안한 도구로서 미술활동을 즐긴다. 영아기는 외부세계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므로 영아들은 주변의 모든 사물을 손으로 만지작거리거나 그어지는 모든 매체를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이것들을 탐색하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생각대로 솔직하게 표현한다. 영아의 미술활동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수용하도록 지속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과 자기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서 자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유혜숙, 2012).

영아기의 미술교육은 본능적인 자기표현을 위한 감각적 자극과 직접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물과 환경의 아름다움을 수용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지적활동이며, 정서적·인성적 영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이다. 그러므로 다감각적 자극을 통해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독창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근주, 2012).

현재 표준보육과정(2013)의 만 2세 예술경험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즉 영아가 주변 환경에서 모양이나 색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미술활동을 통해 예술적 표현을 하며, 자연이나 사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감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영아 미술교육의 내용에 작품 제작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물과 자연을 감각적으로 탐색하고 나아가 명화 및 아동들의 미술 작품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미술 작품의 미적 특성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것까지 포함시킨 것이다(이금구, 2003).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 미술활동의 교수방법을 살펴보면, 영아기는 신체조절이 원활해지면서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 사물에 대하여 선, 모양, 색 등의 예술적 요소를 탐색한다. 그러므로 영아가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만져보고 조작하면서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즐기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영아기는 선입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나 감정, 생각 등을 움직임, 미술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므로 영아가 다양한 미술활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영아기는 일상생활의 환경과 자연, 자신과 또래의 표현과정에서 예술적 요소를 찾고 감상하므로 영아가 주변과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신과 또래가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3). 이러한 영아의 발달 특성 때문에 영아 미술활동 시 주변 환경의 예술적 요소를 탐색하고, 표현하며, 감상하는 경험이 중요하지만 실제 영아 보육현장에서의 미술활동은 기능 습득 위주의 표현 활동과 작품 제작 활동에 치우쳐 운영되고 있다(김성아, 2014). 즉 보육현장에서의 영아가 주변의 예술적 요소를 탐색하고, 감상하도록 하는 경험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이 지적된 것이

다.

또한 영·유아 미술활동에 관한 연구들 중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영·유아 미술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영·유아 미술활동이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한 연구(김세란, 2015; 유혜숙, 2012; 윤경순, 2012; 주보미, 2013; 지숙영, 2012)와 오감을 활용한 미술프로그램 개발 연구(김수연, 2013; 박슬기, 2013; 임소희, 2015), 영·유아 미술교육에 대한 현황과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경민성, 2013; 오진선, 2016; 이찬미, 2015; 이승미, 2008;) 등이 있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미술활동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혹은 현황 인식에 대한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만 2세를 대상으로 미술활동을 개선하는 실험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영아 미술활동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실제 현장의 보육교사는 미술활동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오진선(2016)의 연구에 따르면 영아 미술교육의 필요성은 시설유형, 보육교사의 학력 및 경력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는 있으나, 영아 발달에 적절한 활동자료가 부족하고, 보육교사 스스로 영아 미술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보육교사가 절반이상이었다. 연구자 또한 보육현장에서 영아 미술활동을 지도할 때 지도방법과 미술활동의 내용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체험하면서 영아 미술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사랑반 미술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미술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고, 영아의 자발적인 재료 탐색과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며, 감상을 격려하는 미술활동을 실행함으로써 영아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미술활동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들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여 영아를 위한 미술활동의 교수 및 학습 방법을 향상시키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만 2세 사랑반 미술활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만 2세 사랑반 미술활동의 실행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만 2세 사랑반 미술활동에서 나타난 영아의 변화는 어떠한가?

## 3. 용어의 정의

### 1) 사랑반의 미술활동

본 연구에서의 사랑반의 미술활동은 자유선택활동시간에 2~3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소집단의 형태로 운영되는 미술활동을 의미한다.

## 4. 연구자

연구자는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통해 영아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맑고 순수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고 중학교 때부터 유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본 연구자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에 취미가 있었다. 하얀 도화지와 크레파스만 있으면 오랜 시간 앉아 주변 사물과 풍경을 그리곤 하였다. 연구자는 풍경 그리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집 근처 공원이나 숲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고등학교 시절 입시의 부담감이 느

졌을 때도 연구자는 그림을 그리며 위안을 받곤 하였다.

연구자는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고, 보육실습을 통해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014년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3년간 만 2세 영아를 보육하면서 교육대학원의 유아교육과에서 유아교육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며 연구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처음 만 2세 영아반의 담임교사가 되었을 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었다. 따라서 선배 교사의 조언을 듣고, 교사 스스로 공부해 나가며 영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운영하였다. 보육프로그램 실행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며 영아의 성장 발달의 모습과 잠재력을 본 연구자는 만 2세 영아반의 매력을 느꼈고 3년간 영아반을 지도하였다.

특히 연구자는 영아보육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연구자가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미술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는 미술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영아의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랑반의 미술활동에서 영아는 교사의 지시와 표현기법을 따라서 모방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이러한 영아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영아는 미술활동에 흥미를 잃고, 미술활동을 꺼리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모자이크 활동에서도 관찰되었다. 어느 때와 같이 영아는 교사의 지도에 따라 모자이크 활동을 하며 색종이를 찢고 있었다. 그러다 영아는 색종이를 찢던 것을 멈추고 교사에게 ‘그만 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영역으로 놀이하러 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옆에 앉아 있던 영아도 미술활동을 멈추고 그만하고 싶다는 행동을 보였다. 어린 시절 연구자에게 미술은 내가 생각한 것을 제약 없이 마음껏 그릴 수 있다는 즐거움으로 기억되었지만 실제 사랑반의 영아들에게 미술활동은 즐겁지 않았고, 교사가 미술활동을 실행하면 따라가는

수준이었다. 연구자는 어떻게 하면 영아가 미술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활동을 준비하는 교사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하는 미술활동이 될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미술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미술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자는 관련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미술활동에 대한 영아들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사랑반의 미술활동 시 영아가 재료를 탐색할 시간이 부족하고, 미술활동이 끼적이기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영아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영아들이 미술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술활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미술이 어린 시절 연구자에게 즐거움 속에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이번 실험연구가 영아들이 미술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서 미술활동을 하며 어려움을 느끼는 다른 보육교사들이 미술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영아의 미술발달의 특성

영아 미술활동을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아기의 성장변화에 따른 미술표현 발달단계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영아를 위한 미술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영아의 미술발달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영아의 미술발달의 특성을 영아의 그리기 발달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Kellogg(1969)는 영유아의 그림발달단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묘화형태로 제시하였다. 즉 기초적인 낙서시기를 지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도표와 도식을 만들고, 그다음 균형잡힌 그림이 나타난다. 여러 형태의 그림이 나타난 이후 해님과 사람의 얼굴 모양이 등장하며, 그 모양은 마치 방사선 모양으로 가지 돌친 밤송이처럼 나타난다. 그것이 지나면 비록 조잡스럽지만 영성한 삶의 형태가 나오며 이후로 유아의 그림은 급속도로 다양하게 발달되어 간다(류가영, 2015).

미술교육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학자인 Lowenfeld(1957)는 직접 아동을 지도하면서 그리기의 발달단계를 분류하였으며, 현재에도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유성이, 2015, 재인용). Lowenfeld(1957)는 그리기의 발달단계를 난화기(scribbling stage), 전도식기(pre-symbolic stage), 도식기(symbolic stage), 명기(gang age), 유사사실기(pseudo-realism stage), 사실기(adolescence)의 6단계로 나누었다(이찬미, 2016, 재인용).

연구 참여자인 만 2세 영아에 해당되는 Lowenfeld(1957)의 발달단계는 ‘난화기’이다. ‘난화기’의 미술표현 발달단계의 특성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난화기: 자아표현의 시작시기(The Scribbling Stage : 2~4세)

난화란 ‘마구 그린다’라는 뜻으로 아동이 아무 의미 없이 마구 끄적거리며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난화기는 무질서한 난화기, 조절하는 난화기, 명명하는 난화기로 구분되며, 이 단계는 무엇인가 그린다는 목적보다는 감각이 주변 환경과 접촉하면서 그 반응으로 그림을 그린다.

시각과 손의 근육운동의 협응이 시작되면서 불규칙한 선을 그리고 즐기는 것에서 점차 발전되어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나타나고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 이름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유성이 외, 2015).

영유아들은 종이 위에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담 벽, 방바닥, 책 걸장 등 닿치는 대로 그리는데, 이러한 특징을 심리학에서는 기능적 쾌락(funktionslust)이라 부른다. 그리는 자체가 목적이고 즐거운 활동이어서 어른들이 보기에는 무의미한 장난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창작표현의 기초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단계이다(이찬미, 2016).

① 무질서한 난화기

이 시기의 영아는 근육통제가 되지 못하며, 목적의식이 없고, 손의 움직임에 따라 나타나는 흔적을 보고 좋아한다(이민경, 2015). 영아들은 단지 30cm 정도의 반경에서만 표현할 수 있다(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2011). 영아는 무엇을 그린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팔을 움직이는 행동 자체를 즐기고 그 결과로 우연히 흔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끄적거림은 불규칙적이고 서투른 선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마구 그리는 끄적거리기는 발달상의 자연스런 현상일 뿐 아니라 표현 능력 발달의 기초 경험이 되므로 인

정하고 격려해주어야 한다(김성아, 2014).

## ② 조절하는 난화기

영아가 난화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나면 자신의 선긋기와 종이 위의 흔적들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영아들 자신이 근육운동의 경험을 시각적으로도 경험하는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단계로 대부분 영아들이 이 난화단계에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임하게 된다(유성이 외, 2015).

영아가 자신의 동작에 의하여 나타난 종이 위에 흔적을 인식하게 되면 영아에게 자극이 되어 다양한 동작을 시도하게 된다. 반복된 동작들은 어떠한 근육운동에 대한 조절이 가능함을 나타낸다(조아현, 2016).

## ③ 명명하는 난화기

이 단계는 단순히 선만을 그리는 단계에서 벗어나 영아가 자신의 난화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영아는 사고를 갖고 시각적 기억력으로 그림을 그리며 색에 대해 무관하고 상징적 활동을 시작한다. 영아는 점차 원으로 접근하면서 정돈된 회전이 반복되며, 원을 의식하기 시작한다. 영아는 자신의 그림에 명명을 하고, 팔의 움직임과 상상의 세계를 연결하여 그린 선들을 그림으로 생각한다(이민경, 2015).

이때는 영아의 그림에 대해 사실성을 요구하거나 발견하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 단계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영아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다(유성이 외, 2015).



<사진 1> 무질서한 난화      <사진 2> 명명하는 난화  
출처: 유성이 외(2015). (재료중심의 영유아 미술교육).

이상에서와 같이 영아의 그리기 발달단계는 마구 그리는 무질서한 난화기에서 점차 조절된 난화를 표현하고, 자신의 그림에 이름을 붙이며 좀 더 복잡한 난화를 그려나가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영아의 그리기 발달단계는 초기 난화기를 거쳐 점차 능숙한 난화기로 발전해가고, 대체로 일정한 발달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영아 미술활동

### 1) 영아 미술활동의 필요성

영아기는 신체, 언어, 사회, 인지, 정서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영아의 미술활동은 이와 같은 발달을 원만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강숙현, 2006). 영아의 미술활동은 신체적 발달,

사회적 발달, 정서적 발달, 인지적 발달, 창의성 발달을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미술활동을 통해 대소근육과 협응 능력을 발달시켜 신체적 발달을 도울 수 있다. 영아는 큰 종이 위에서 굵직거리기, 종이 찢기 등의 미술활동을 통해 대소근육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영아는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험을 통해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기르고, 소근육의 조작 능력을 더욱 정교화 시킬 수 있다(박슬기, 2013).

영아는 미술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영아들은 친구와 함께 미술활동에 참여하면서 자료나 도구, 자신들의 생각을 서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강숙현 외, 2006). 또한 미술활동 후 영아들이 사용한 도구를 스스로 정리함으로써 깨끗이 정돈하는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 미술활동을 통해 영아는 친구와 도구를 공유하고, 제자리에 갖다놓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을 서서히 학습하게 된다. 즉 영아는 미술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 의견, 감정 등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오연주 외, 2008).

영아는 미술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출하고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다. 영아는 인지와 언어 능력이 발달하며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점차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미술활동 자체가 영아에게 즐거움이 되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긴장을 완화시켜 영아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성격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료 탐색 및 표현과 감상을 포함하는 미술활동을 통해 영아는 타인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정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조절력도 기를 수 있다(박슬기, 2013).

미술은 영아에게 정서적으로 즐거운 경험이 된다. 미술활동은 영아의 감정, 환상, 두려움, 좌절, 공포 등을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하여 표면적으로 드

러나게 한다(이민경, 2015). 부정적인 감정은 미술활동을 통해 긍정적이고 적합한 방법으로 해결 될 수 있다. 핑거페인팅, 밀가루 반죽 두드리고 밟기, 종이 찢어 날리기, 큰 종이를 소리 내어 찢기 등과 같은 미술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

다양한 사람, 사물,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영아는 미술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표현할 일련의 사물들에 대한 이미지를 재정비한다(오연주 외, 2008). 영아는 자신의 사고와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물체를 구성하고 빚어 붓으로써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명백히 하고 보다 예리하게 주변의 세계를 지각하게 된다. 또한 여러 종류의 재료를 직접 다루면서 그 재료들이 갖는 촉감, 색깔, 유형, 성질 등을 탐색하고 실험하고 배우며,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여 시험하기도 한다(이민경, 2015).

영아의 상상력은 미술활동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미술은 발견, 탐색, 실험 등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방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오연주 외, 2008).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통한 그리기, 만들기, 구성하기, 꾸미기 등의 미술활동은 영아의 상상력이 자극하고, 영아가 남과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이정옥, 양수정, 2016, 재인용). 따라서 미술활동은 단순하고 획일적인 표현활동을 지양하고, 영아 개인의 발상이나 창의적인 사고를 중시하며,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서 새롭고 독창적인 표현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한다(유성이 외, 2015).

이상에서와 같이 종합하여 볼 때 영아기는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영아의 미술활동은 영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창의성 발달을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영아에 대한 적절한 미술 활동 지도가 필요하다.

## 2) 표준보육과정과 영아 미술활동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보육과정의 목적, 목표, 내용과 운영에 관련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고시되었다.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표준보육과정에서 영아 미술활동과 관련된 영역은 예술경험 영역이다.

‘예술경험 영역’은 출생 후부터 영유아가 주변 환경 및 생활 속에서 다양한 예술적 요소를 흥미롭게 경험하고 즐기도록 하는 영역이다. 예술경험 영역은 영아가 자신의 신체 및 주변 환경에서 예술적 요소를 탐색하고, 리듬이나 노래, 움직임 및 미술활동을 통해 모방과 상상놀이로 표현하며, 주변의 환경이나 자연에 대한 다양한 표현 속에서 예술적인 요소를 감상하고 즐기는 태도를 기르는 영역이다.

표준보육과정 예술 경험 영역의 교육목표는 ‘주변의 친근한 환경과 일상 생활에 관심을 보이고 예술적 요소를 직접 경험하고 즐기므로써 창의성과 감성을 기른다’이다(보건복지부, 2013). 만 2세의 표준보육과정 예술경험 영역은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의 세 가지 내용범주로 구성되며, 내용범주별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예술경험 내용범주별 세부내용

내용범주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요소에 탐색하기	주변의 소리와 움직임을 탐색한다.			
		주변 환경에서 색, 모양을 탐색한다.			
예술적 표현하기	리듬 있는 소리로 반응하기	리듬 있는 소리에 관심을 가진다.		노래를 부분적으로 따라 부른다.	
		리듬과 노래에 소리로 반응한다.	리듬과 음높이에 맞추어 소리를 낸다.		

	움직임으로 반응하기	손발 흔들기와 몸 움직임으로 반응한다.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인다.
	자발적으로 미술활동하기	자발적으로 그리기, 만들기를 한다. 간단한 도구와 미술재료를 다룬다.
	모방행동 즐기기	소리나 얼굴 표정, 몸 움직임 등을 모방한다. 단순한 모방 행동을 놀이처럼 즐긴다.
예술 감상하기	아름다움 경험하기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소리와 노래에 관심을 가진다. 일상생활에서 리듬있는 소리와 노래를 즐겨 듣는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이나 사물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출처: 보건복지부(2013).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아름다움 찾아보기’에서는 영아가 주변의 환경에서 예술적 요소에 관련된 현상이나 사물에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탐색하도록 한다. 2세 영아는 여러 가지 예술적 요소들로 가득 차있는 일상에서 이전 시기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색과 모양을 탐색한다. 영아가 시각적으로 다양한 색과 모양을 구분할 줄 알게 되면서 점차 선호하는 색이나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선호를 자연스럽게 확장하여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변 환경과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해야한다.

‘예술적 표현하기’에서는 영아가 소리·움직임·미술 경험·모방행동을 마음껏 시도하고 표현하며 자유롭게 즐기도록 한다. 영아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시도하는 시기이므로 영아가 무언가를 그리거나 만들어 보는 과정 자체에 목적을 두고 미술활동을 자발적으로 시도하며 과정을 즐기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 영아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 자신감을 기르고 자발적으로 그리기를 시도함으로써 자신만의 표현과정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영아가 미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미술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리기용, 만들기용 도구와 재료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영아기는 손 조작이 미숙하고 힘 조절이 원활하지

않으나 간단한 도구와 재료를 활용하여 표현을 만들어 내려고 시도함으로써 성취감을 갖고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그러므로 영아가 충분한 공간에서 조작성이 쉬운 재료나 도구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 감상하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소리나 노래, 사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예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도록 한다. 영아기는 주변 환경의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을 즐기는 시기이다. 영아가 좀 더 선호하는 것, 좀 더 호기심을 갖는 것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영아 미술활동은 영아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과 자연에 대해 탐색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고, 미술표현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에 대한 감상과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영아 미술활동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 1) 영아 미술활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구성

미술활동에서 영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표현 욕구를 최대한으로 끌어내며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 미술활동을 위한 적절한 경험과 환경을 제공해주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강숙현 외, 2006).

삼성복지재단(2004)에서는 만 2세 영아를 위한 미술영역의 환경은 교실의 특히 밝고 조용한 곳, 물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며 다양한 작업 활동을 위해 영아에게 적절한 낮은 책상과 자료를 넣을 수 있는 장, 작품의 보관과 전시를 위한 설비 등을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준보육과정(2013)에서는 만 2세 영아를 위한 미술영역은 활동적이면서

도 물이 필요하므로 세면대나 출입구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끼적거리고, 찢고, 오리고, 자르고 붙이는 다양한 조형 영역을 구성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명화나 아름다운 그림이나 사진 등을 영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붙여줄 것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미술활동을 위한 영역을 구성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을 몇몇 학자들이 제안하고 있는데(김은영, 2014; 양경희, 1997; 이금구, 2003; 이영주, 1997; 이정환 외, 2013)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영역은 그림 그리기, 만들기, 찍기 등의 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소란하거나 동적인 영역에서 멀리 배치하여야 한다. 영아는 대소근육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활동하므로 영아가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둘째, 영아가 자신이 필요한 미술 도구와 재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정리하기 쉽도록 공간을 구성해주어야 한다. 영아들의 신체 발달 특성상 1미터 이하의 낮은 선반장을 마련하여 풀, 도장류, 안전가위, 다양한 재질의 종이, 폐품 등의 도구와 재료를 바구니별로 담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료를 배치할 때는 재료가 눈에 잘 띄도록 하고, 재료의 모양과 크기로 분류하여 준비한다.

셋째, 미술활동은 물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면대와 가까이 배치한다. 물을 닦아야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바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조금 채운 낮은 대야나 젖은 수건, 스펀지 등을 준비해둔다.

넷째, 영아의 작품을 말리거나 보관해 두는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장소의 마련은 영아 자신의 작품이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고 자신의 결과물이나 자신이 하고 있는 미술활동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모든 재료는 안전하게 보관되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가위와 같이 날카로운 도구는 교사용 선반에 따로 두어 관리하고 이젤 등도 영아의 이동이 잦은 통로에서 벗어나 충돌하지 않도록 한다.

여섯째, 작품의 전시와 감상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영아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영아가 원하는 위치에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영아는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전시공간을 통해 영아들은 또래 혹은 성인 또는 자기 자신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일곱째, 영아가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미학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의 환경을 구성해준다. 심미감 있게 조성된 물리적 환경과의 경험에서 영아의 '미적 안목'은 길러질 수 있다. 따라서 영아기부터 일상생활에서 심미감과 미적안목을 경험하여 어른이 되어서도 꾸준히 발달될 수 있다.

교사는 영아 미술활동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을 구성해주어 영아가 자유롭게 재료를 탐색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예술적 요소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영아 미술활동 지도시 교사의 역할

보육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보육의 전 과정을 주관하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어떻게 보육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과 보육의 효율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지성애 외, 2005). 교사가 미술활동을 계획하고 지도하는 것은 영아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교수방법이 영아에게 특별히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게 하고, 생각을 창의적으로 이끄는 핵심요인이 된다(Gibson & Brown, 1982; 채영란 외, 2006, 재인용).

이영자와 이정옥과 유혜숙(1999)은 교사는 발달에 적합하고 개방적이며 내용 영역 간, 타 교과간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미술활동을 계획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는 영유아들이 미술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열

의를 가질 수 있도록 모델링을 보여주고, 내적인 동기유발을 유도함으로써 영유아로 하여금 미술활동을 즐겁게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승연(2006)은 영유아의 미술활동 시 교사의 중요한 역할은 모든 영유아로 하여금 미술을 사랑하는 심미적인 심성을 키워주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영아는 미술활동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내면 의식 속에 미술을 사랑하는 열정과 흥미를 개발시켜야 한다.

김혜금(2011)은 영유아 미술활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첫째, 교사는 영아 스스로 사고와 주제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지시나 제한, 비판은 피해야 하며 가능한 부드러운 태도로 권하고, 영유아가 미술재료와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과 생각을 자극하는 제안을 해야한다고 하였다.

셋째, 자유로운 표현을 위하여 발달 수준에 알맞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경험과 표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한다고 하였다. 영유아의 표현은 풍부한 생활경험에 의한 것이므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얻은 미적 정서나 사물에 대한 느낌, 상상 등은 그들의 표현을 생동감 넘치고 독특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술과 다른 교과과정 영역은 서로 상호 관련되므로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종합하여 영아 미술활동 시 교사의 역할에 관하여 살펴보면, 영아로 하여금 미술활동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키고,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미술재료와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영아 미술활동의 내용 영역 간, 타 교과간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미술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 4. 선행연구

영아 미술활동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유아미술활동에 대한 연구도 함께 살펴보겠다. 유아 미술활동과 관련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유아 미술활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 유아미술 프로그램 개발 연구, 유아미술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연구가 있다.

첫째, 유아미술활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로는 (가종석, 2016; 김양희, 2016; 맹선미, 2016; 박순자, 2010; 이미혜, 2016)이 있다.

김양희(2016)는 만다라 미술활동이 만 3세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만다라 미술활동을 경험한 유아의 정서지능은 실시하지 않은 유아들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지능의 하위요소 중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순자(2010)는 협동미술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적응행동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유아는 협동미술활동의 진행에 따라 점차적으로 또래와 활발한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보다 큰 성취감을 나타냈다고 보았다.

이미혜(2016)는 스토리텔링 미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스토리텔링 미술활동은 유아의 창의성 하위요소인 감수성, 독창성, 유창성, 융통성에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스토리텔링 미술활동은 유아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말하고, 그것을 미술로 표현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므로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해 유아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종석(2016), 맹선미(2016)는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가종석(2016)은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만 4세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유아의 성별 및 부모의 맞벌이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비맞벌이 가정환경이 맞벌이 가정환경에 비해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둘째, 유아미술 프로그램 개발 연구로는 손혜경(2016)의 유아를 위한 자연물 미술교육 프로그램과 이경연(2016)의 3세 유아를 위한 감각놀이 기반 미술교육 프로그램, 임소희(2015)의 오감체험을 통한 놀이 프로그램이 있다. 손혜경(2016)은 유아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유아에게 적합한 자연물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경연(2016)은 감각놀이 기반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3세 유아의 미술표현능력, 창의성, 놀이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임소희(2015)는 오감을 자극하고 행위중심의 체험 미술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셋째, 유아미술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로는 김현지(2016), 유성지(2016), 임경희(2016) 등이 있다. 김현지(2016)는 사립유치원 방과 후 미술활동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유성지(2016)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미술활동의 운영실태와 기관에서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해 연구하였다. 유성지(2016)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에서 미술교육 수행 시 교사들은 '전문적인 미술지도방법의 미숙'과 '교육 환경 여건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탐색·표현·감상이 영역별로 균형 있게 지도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유아의 수가 많아서 개별 상호작용이 어려움으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주제 및 활동 선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으로', '교사가 미술영역별활동에 대한 기초 지식의 부족함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임경희(2016)는 유치원 학부모의 미술활동에 대한 자녀의 흥미도, 만족도, 선호성과 미술교육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요구를 연구하였다.

이상 종합하여 유아 미술활동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유아 미술활

동연구가 진행되고 효과가 검증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 미술활동과 관련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영아미술 프로그램 개발 연구, 영아 미술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 영아 미술교육의 현황과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있다.

첫째, 영아미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김수연(2013)의 25개월에서 36개월까지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오감발달을 위한 영아미술교육 프로그램과 박슬기(2013)의 오감발달재료를 활용한 영아 미술프로그램이 있다. 박슬기(2013)는 오감발달재료를 활용한 영아미술프로그램을 통해 영아는 미술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다양한 표현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성아(2014)는 미술활동 과정에서 체험, 탐색, 감상, 놀이 등의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25개월에서 36개월 영아를 중심으로 과정중심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영아 미술활동이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로는(김세란, 2015; 유혜숙, 2012; 윤경순, 2012)가 있다. 김세란(2015)은 다양한 재료를 오감으로 탐색하고 창의적으로 신체표현하여 자신의 내적인 표현을 하는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영아의 언어 및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영아의 언어발달과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혜숙(2012)은 미술재료를 감각적으로 탐색하여 표현, 감상해 보는 감각적 탐색 미술놀이가 영아의 그리기 태도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윤경순(2012)은 어머니와 함께 하는 창의성 미술 프로그램이 영아의 표현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영아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공간 지각, 자율성, 표현적응력을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영아미술교육에 대한 현황과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로는 오진선

(2016), 이찬미(2015) 등이 있다. 오진선(2016)의 연구에 따르면 영아미술교육의 필요성은 보육교사의 시설유형, 학력 및 경력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제 영아발달에 대한 적절한 미술활동 자료가 부족하고, 보육교사 스스로 영아미술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보육교사가 절반이상이었다.

이찬미(2015)는 보육교사는 미술활동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이유로는 ‘창의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므로’가 가장 많았다. 또한 효과적인 영아미술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재, 교구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교실에 미술영역이 독립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의견, 연령에 적합한 미술교육 및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미술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는 다소 부족하였다. 이러한 영아 미술활동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보육교사는 영아발달에 적절한 미술활동 자료가 부족하고, 보육교사 스스로 영아 미술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영아의 발달을 고려한 미술활동이 연구되어야 하나, 실제로 연구된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영아의 미술활동 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실행연구

실행연구는 교사 자신이 교육현장에서 개선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교실의 문제 뿐 아니라 그 교실의 학생 그리고 교사와 주변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행연구는 실천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며 특히 반성적 실천의 자기순환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실천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연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이용숙 외, 2013).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 방법이 가설을 세우거나 실험집단이나 통제집단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조작하고 통제 했다면, 실행연구는 교실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감안하면서 실행을 통해 얻어지는 연구자의 실행 결과를 배경으로 하여 연구자가 목표로 하는 교육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정은미, 2015). 그러므로 실행연구는 교육 현장의 개선에 가장 직접적인 기여를 하면서 일반화 시의 시행착오를 줄여준다. 또한 교사가 아이디어를 실제에 투입하고, 교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개발시키고 시도하며, 수업 방법이나 자료의 효율성을 평가한다는 것에서 실행연구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이명숙, 2001).

연구자는 이러한 실행연구의 특징이 만 2세 영아의 미술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미술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려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자는 지난 3년 간 보육현장에서 미술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영아의 미술활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하지 못했다. 이에 연구자는 실행 연구를 통해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의 문제점

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계획, 실행,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영아들이 미술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고 영아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하려고 한다.

## 2. 연구참여자

### 1) 희망어린이집

희망어린이집은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써, 2013년에 개원하였다. 희망어린이집은 ‘노력하는 어린이, 감사할 줄 아는 어린이, 사랑을 나누는 어린이, 행복을 느끼는 어린이’라는 원훈을 가지고 있다. 희망어린이집은 4층 건물로, 1~3층에는 보육실이 만 0, 1, 2, 3세반 등 총 7개의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층에는 별도의 유희시설이 준비되어 있고, 4층과 옥상 공터에는 유아들이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터가 준비되어 있는 등 쾌적하고 편안하며 안정적으로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총 49명의 영·유아가 생활하고 있으며 한 학급에 교사는 한 명씩 배치되어 있다. 근무하는 교직원은 원장과 각 반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포함하여 총 9명이다. 희망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며, 차량운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원하는 모두 도보로 등·하원 하고 있다.

### 2) 만 2세 사랑반

본 연구자의 학급인 사랑반은 2층에 위치하고 있다. 교실은 7명의 영아들

이 함께 사용하고 있고, 교실 두 벽면에 창문이 넓어 채광과 통풍이 잘되는 쾌적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놀이 영역은 미술, 언어, 탐색·조작, 신체, 음률, 쌓기놀이, 역할놀이 영역 등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반은 맞벌이 가정의 영아가 많아서 대부분 9시 30분 이전에 등원하여 가방 정리 후 자유선택활동으로 오전 일과를 시작한다. 오전 간식을 먹은 후 오전 실내 자유선택활동을 시작한다. 사랑반의 미술활동은 오전 실내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소집단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실외활동을 하고, 11시 4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배변활동 및 손 씻기, 양치질 및 낮잠준비를 한다. 준비가 끝난 영아들은 낮잠 및 휴식시간을 갖는다. 낮잠을 자고 난 후 오후 간식을 먹고 16시부터 자유선택활동을 하며 개별적으로 귀가한다. 사랑반의 하루일과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사랑반의 하루일과

시 간	활 동
7:30~9:00	오전 통합보육
9:00~9:40	등원 및 실내 자유선택활동
9:40~10:00	오전 간식
10:00~11:00	오전 실내 자유선택활동 (미술활동)
11:00~11:40	오전 실외활동 및 자유놀이
11:40~13:00	점심식사
13:00~15:00	낮잠 및 휴식
15:00~15:30	배변활동 및 오후 간식
15:30~16:00	오후실외활동
16:00~17:00	오후실내 자유선택활동
17:00~19:30	통합보육 및 귀가지도

### 3) 사랑반 영아들

사랑반은 남아 2명, 여아 5명 등 총 7명의 영아로 구성되어 있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영아는 5명이며, 나머지 영아 2명의 어머니는 전업 주부이다. 사랑반의 영아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만 2세반 사랑반 영아들은 모두 가명을 사용함).

#### (1) 김지우

지우는 28개월이다. 맞벌이 가정의 영아여서 아침 8시 등원하여 저녁 18시에 하원 한다. 지우는 월령이 어리고 언어발달이 늦어 자신의 의사를 몸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또래와의 놀이과정에서 또래를 넘어지게 하거나 세계 미는 모습이 종종 관찰된다. 특히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더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또한 지우는 자기주장이 강하여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싫어'라고 말하며 강하게 거부한다. 평소에 미술활동을 진행하면 처음에는 호기심을 보이며 참여하지만 흥미가 떨어지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 (2) 김하늘

하늘이는 35개월이다. 사랑반에서 언어발달이 가장 빨라서 이야기할 때 2~3 단어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한다. 한 번 호기심을 느끼면 또래에 비해 오랫동안 집중하는 모습이 관찰되며 미술활동 시에도 새로운 재료에 호기심과 흥미를 나타내곤 한다. 미술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표현에 명명하는 모습도 보인다.

### (3) 정하나

하나이는 37개월이다. 간단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한다. 하나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관심이 없는 활동에는 금방 흥미를 잃고 참여하지 않는다. 미술활동 시에도 흥미를 잃으면 다른 영역으로 가서 놀이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평소 미술활동 시 하나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색과 모양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표현에 명명하는 모습을 보인다.

### (4) 이수인

수인이는 27개월이며 이란성 쌍둥이로 사랑반에서 제일 어리다. 수인이는 언어발달이 늦어 짧은 단어로 의사표현을 한다. 화가 나거나 불편할 때는 울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수인이는 보육시간에 울동하기, 뛰기와 같은 동적인 활동을 주로하며 가끔은 미술영역에 앉아서 색연필로 끼적이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수인이는 자유자재로 선을 그어 끼적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된다.

### (5) 이세인

세인이는 27개월이며 수인이의 쌍둥이 동생이다. 세인이는 말이 늦어 아주 간단한 단어만을 사용해서 의사표현을 한다. 세인이는 퍼즐 맞추기, 블록 조립하기와 같은 정적인 활동을 주로 한다. 미술활동 시에는 교사의 지시를 따라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작품을 집중하여 관찰하기도 한다.

### (6) 이루리

루리는 35개월이다. 루리는 맞벌이 가정의 영아인데 어머니께서 일이 바빠서서 루리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다. 루리는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놀이에 참여하기 보다는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교사가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지만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며 거절하곤 한다. 루리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큰 소리로 울거나, 친구를 때리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미술활동을 참여할 때도 기분이 좋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활동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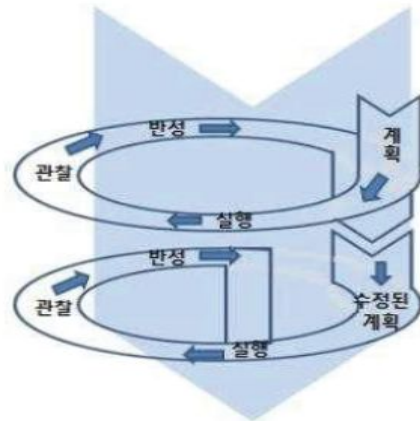
### (7) 김주완

주완이는 29개월이다. 주완이는 또래에 비해 몸집이 크고 힘이 세다. 또래와의 놀이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경우 또래를 넘어지게 하거나 미는 모습을 보인다. 가끔은 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언어발달이 늦어서 짧은 단어로 이야기하며 소리치며 표현한다. 미술활동이나 언어활동과 같은 정적인 활동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쌓기놀이나 신체활동같은 동적인 활동을 주로 한다. 미술활동시간에는 쌓기영역으로 가거나,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거의 참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6년 5월 16일부터 2016년 9월 18일까지 실행하였다. 실행연구 과정은 Kemmis 와 McTaggart(1998)가 제시한 나선형의 자기 반성적 연구사이틀 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는 문제파악과 변화의 계획단계, 계획의

실천과 변화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찰 단계, 결과에 대한 성찰(반성)단계, 수정된 계획에 대한 관찰 및 반성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그림 1] ‘Kemmis와 Mctaggart(1988)의 자기 반성적 실행연구 사이클 모형(출처: 김자희, 2013)

본 실행연구는 구체적으로 3단계로 진행되었다. 절차는 1, 2차에 나누어 실행하였다. 먼저, 사랑반의 미술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1차 실행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2차 실행을 하고 평가하였다. 세부적인 연구일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3> 연구일정 및 절차

단 계	기 간	실 행 절 차
문제점 파악 및 실행 방안 모색	2016년 5월 16일	-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 분석 - 영아 미술활동에 대한 문헌 연구 - 실행 방안 모색

실 행	1차	2016년 7월 25일 ~ 8월 7일	- 1차 실행 - 실행 후 분석 및 평가 - 2차 실행 방안 모색
	2차	2016년 8월 8일 ~ 9월 18일	- 2차 실행 - 실행 후 분석 및 평가

### 1) 1단계: 문제점 파악

2016년 5월 16일부터 2016년 7월 24일까지 사랑반의 미술 활동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간교육계획안, 월간교육계획안, 주간교육계획안, 일일보육계획안 및 일일 교육 평가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관련 참고문헌과 연구 논문, 인터넷 자료를 토대로 미술활동의 개념 및 필요성, 교육적 효과, 환경 구성,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미술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7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참여관찰을 통하여 연구자 학급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술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랑반의 영아들이 미술활동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미술 영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 2) 2단계: 1차 실행 및 평가

2016년 7월 25일부터 2016년 8월 7일까지 사랑반의 미술활동 실행 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차 실행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정확한 실행과 평가를 위해서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 시 사진을 찍고, 비디오로 촬영하여 상세히 전사하였다. 또한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사랑반의 영아를 세밀히 관찰하였고, 저널을 써서 기록하였다. 연구자는 수집 및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표에서 보는 것처럼 1차 실행을 하였

다.

<표 4> 1차 실행 내용

단 계	기 간	실 행 내 용
실 행 1차	2016년 7월 25일 ~ 8월 7일	- 미술영역의 재구성 - 친숙한 재료를 통한 감각적 탐색활동 및 자료제공

1차 실행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아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료를 탐색하였고, 재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미술영역에서 스스로 미술놀이를 하는 영아의 수가 늘어났다. 그러나 교사가 영아의 재료탐색에 지나치게 개입을 하였고, 미술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영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반응을 이끌어 내기에는 미술환경 구성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연구자는 1차 실행 및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2차 실행을 계획하였다.

### 3) 3단계: 2차 실행 및 평가

미술 활동의 1차 실행에서 수집된 자료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영아들의 미술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판단해보고 2차 실행 활동 및 평가를 하였다. 2차 실행에서는 보다 다양한 미술 재료를 제공하고, 입체 표현활동을 실시하였다.

<표 5> 2차 실행 내용

단 계	기 간	실 행 내 용
실 행 2차	2016년 8월 8일 ~ 9월 18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한 미술 활동 및 자료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채도장 찍기</li> <li>• 생크림 그림 그리기</li> <li>• 커피여과지에 그리기</li> <li>• 밀가루 반죽 놀이하기</li> </ul> </li> <li>- 입체 표현활동 및 감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레이콘 붙이기</li> <li>• 컬러 점토 놀이하기</li> </ul> </li> <li>- 미술 영역의 지속적인 재구성</li> </ul>

2차 실행을 통해 영아는 다양한 재료를 자발적으로 탐색하며 미술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술활동을 진행하며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연구자는 미술활동에 몰두해 있는 영아를 기다려주고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영아의 미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4. 자료수집 방법

##### 1)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관찰가로서의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연구대상에 있는 참여자의 삶에 참여하는 현장활동을 의미한다(Fetterman, 1991; 김영천, 2014,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본인이 교사이며, 실행연구자로 참여하는 완전한 참여형태로 관찰하였다.

2016년 5월 16일부터 2016년 9월 18일까지 미술활동과 영아의 미술영역에서의 놀이모습을 관찰하였다. 연구자는 일주일에 1회의 미술활동을 소집단으로 진행하여, 매 회 이루어지는 미술활동과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미술영역에서 영아의 미술놀이 모습을 관찰하였다. 연구자는 미술활동을 진행하면서 영아의 반응을 관찰하였고, 교사와 영아, 영아와 영아, 영아와 미술재료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관찰한 내용은 현장노트에 기록하고 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 2) 사진과 비디오 촬영

사진과 비디오테이프는 언어적 기술과 진술이 제공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보다 근접하고 확실한 장면 증거와 정보를 제공해 준다. 현장에서 오감을 사용한 즉각적인 관찰이 갖는 제한점을 사진과 비디오녹화로 보완하여 지나가 버린 자연사건과 현상을 기록하여 연구자가 다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이용숙 외,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도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중요한 자료수집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미술활동을 진행하면서 매 회기마다 영아와 교사, 영아와 영아 영아와 미술재료의 상호작용을 비디오 촬영하여 전사하고 사진자료로 기록하였다. 또한 미술영역에서 영아가 미술놀이에 참여했을 때를 표집하여 기록하였다. 비디오를 녹화하여 기록한 사진자료와 녹화자료는 전개에 따른 내용을 분석하여 총체적인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활동 양상과 갈등해결 방안으로서의 전략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재해석 하였다. 그리고 영아들의 변화된 모습이나 과정을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다음 활동 시에 적용하고 보완하였다.

### 3) 저널 쓰기

저널쓰기는 영아 교사들이 자신의 실천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는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의미하며, 타인과의 담론을 통해 교수 및 학습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박은혜, 2009).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전문성과 반성적 사고가 요구되므로 연구자는 저널쓰기를 통해 미술활동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고안하는 자료수집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자 저널은 미술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의 매회기마다 활동 전과 후에 1회씩 기록하였다. 활동과정을 촬영한 녹화내용을 전사하기 전 저널을 먼저 기록하여 연구자가 다시 한 번 진행했던 활동과정을 돌아보고 미처 현장노트에 기록하거나 녹화자료로 남기지 못했던 연구자의 생각이나 의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까지도 떠올리며 기록하여 활용하였다.

## 5. 자료 분석

연구 기간 동안 수집된 현장노트, 연구자저널, 일일교육계획안, 사진자료, 녹화 자료, 연구자 활동 평가, 중간 평가 내용 등을 가지고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영아들에게 나타나는 의미있는 반응이나 변화 모습,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확인하고 연구자의 견해를 메모하였다. 이후 표시된 사례를 다시 읽으며 비슷한 범주로 유목화했고, 문헌고찰을 병행하며 유목화된 범주에 따라 분류된 사례를 해석하였다. 또한 범주화한 것은 하위 범주로 나눠 변화에 따른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진행에 따른 실행과정과 결과의 해석, 분석 작업은 실행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교사

의 조언, 지도교수의 조언을 토대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5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미술활동에 대한 연간교육계획안 및 월간교육계획안, 주간교육계획안, 일일보육일지, 사랑반의 미술활동 비디오 촬영영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랑반의 미술활동의 문제점은 영아의 소극적인 반응, 미술영역의 낮은 관심도로 나타났다.

#### 1) 미술활동에 대한 영아의 소극적인 반응

연구자가 실시한 미술활동은 미술재료 탐색시간이 부족하여 영아의 미술활동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렸다. 연구자는 미술활동을 진행하며, 영아가 미술재료를 탐색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표현기법 지도에 더 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 이게 뭘까요?

하나: 물감이요.

교사: 맞아요. 물감이예요.

\* 교사는 옆에 있는 물감을 영아들에게 보여준다.

교사: 선생님이 물감을 종이에다 묻히면 너희들이 호~ 붙어서 멋지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 교사는 영아들에게 빨대를 나누어 준다.

교사: 선생님이 이제 빨대를 줄거야. 너희들이 붙어봐. 자~ 쓱 붙어보세요.

교사: 그러면 멋진 무늬가 나올거예요.

\* 교사는 하늘, 하나에게 하나씩 준다.

(2016. 7. 13. 자유선택활동)



<사진 3> 물감을 붙어보는 영아들

교사: 자, 우리 모두 색종이를 가지고 모자이크를 해보아요.

\* 교사는 색종이를 이용해 미리 만들어 놓은 틀립을 영아들에게 보여준다.

교사: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아들: 꽃이요.

교사: 여러분, 이 꽃의 이름은 튜립이에요.

주완: 빨간색이요. 이건 뭐예요?

교사: 빨간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네. 그렇지? 오늘은 선생님  
이랑 튜립 모자이크를 할거예요.

교사: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모자이크를 만들어봐요.

교사는 색종이를 찢어 영아들에게 보여준다.

교사: 색종이를 이렇게 찢어서 만드는 거예요. 주완이 한 번 해보세요..

\* 교사는 주완이가 색종이를 찢는 것을 지켜보고 잘하지 못하면 찢는 것을 도와준다.

(2016. 7. 20. 자유선택활동)

위 사례는 연구자가 미술활동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관찰된 내용이다. 사례1에서 연구자는 다양한 색상을 가진 물감의 탐색 기회를 영아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바로 빨대로 물감을 부는 시늉을 하여 영아가 교사의 표현기법을 모방하도록 지도하였다.

사례2에서도 연구자는 미술재료인 색종이의 탐색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모자이크 기법 지도를 실시하였다. 주완이는 연구자에게 색종이를 받은 후 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색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연구자는 반응하지 않고, 표현기법 지도에 더 집중하였다. 영아가 재료를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만져보고 조작하면서 재료의 특성과 활용방법, 예술적 요소를 탐색할 수 있는데 연구자는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재료탐색 경험의 부족은 영아의 미술활동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렸고, 소극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었다.

또한 영아들이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미술활동을 하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연구자가 영아들에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미술활동을 지도하다 보니 연구자가 이야기하는 것만 따라하는 소극적인 태도와 반응이 나타났다.

주완이의 경우, 색종이를 찢은 후 다음 행동을 하지 않고 연구자를 쳐

다보고만 있었다. 연구자가 색종이를 풀로 붙여보라고 이야기하자, 주완이는 다시 연구자가 이야기한대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연구자가 이야기하고 제시한 표현기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

주완이는 다시 색종이를 찢는다.

주완이는 교사를 쳐다본다.

\* 교사가 주완이의 활동지에 풀을 바른다.

교사: 선생님이 풀 발라줬어 이제 여기다 해봐. 짠

\* 규원이는 이야기 한다.

주완: 됐어요.

교사: 다 됐어요? 뭐가 됐을까? 보라색 틀립.

\* 주완이는 자신이 만든 것을 살핀다.

(2016. 7. 20. 사전관찰)

사랑반의 미술활동은 영아가 재료를 충분히 탐색할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고, 교사가 표현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모방하도록 하는 표현기법 지도에 치우쳤기 때문에 영아는 미술활동 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 2) 미술영역에 대한 낮은 관심도

2015년도 사랑반의 영아들과 미술 표현활동을 실시한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총 52회의 활동을 계획하여 시행하였다. 이 중에서 평면 표현활동이 39회로 75%를, 입체 표현활동은 10회로 19.2%, 감상활동이 3회로 5.8%를 차지하였다.

이는 미술활동이 단순하고 획일화된 평면 및 입체 표현활동 위주로 시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표현활동 49회 중에서도 끼적이기 활동이

26회로 59.1%를 차지하여 교사가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시간이 적게 걸리고, 쉽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미술표현 활동 위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감상하는 기회도 3회 제공하였으나, 흐린 색채의 수채화 위주의 명화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행하여 영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끌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러한 단순한 미술활동 경험은 영아의 미술영역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교실의 놀이영역 구성 시 영아들이 흥미를 많이 갖는 쌓기 영역이나 역할놀이 영역에 치중하여 구성하였고, 미술영역에 대한 편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사랑반의 미술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재료와 교구의 교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태도로 영아는 미술영역의 재료를 미술활동 시 활용하기 보다 다른 영역의 놀잇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났다. 예를 들어 미술영역의 폐품재료는 입체 표현 활동에 사용되기 보다는 역할놀이의 소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 2.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 개선을 위한 1차 실행

1차 미술활동 개선에서는 미술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1차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친숙한 재료를 통한 감각적 탐색활동을 계획하였다. 즉, 친숙한 미술재료를 선택하여 영아가 재료의 모양과 색을 탐색하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술활동을 실행한 후 사용된 재료를 실행한 주의 미술영역에 제공하여 영아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사랑반의 미술영역의 배치 및 구성을 다시 하였다. 미술영역을 재구성해 줌으로써 영아들이 미술영역에 관심을 갖고 미술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영아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

으킬 수 있는 미술 영역의 재료 및 비품을 새롭게 준비하고, 연령에 맞지 않는 재료는 정리하였다. 또한, 기존의 협소한 미술영역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미술영역에 책상을 추가하여 영아가 충분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미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 친숙한 재료를 통한 감각적 탐색활동 및 자료제공

난화기의 영아는 근육운동감각을 경험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기교가 필요 없으면서 자유로운 표현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재료가 적합하다. 이를 고려하여 연구자는 사랑반의 영아가 미술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평상시 사용하는 ‘친숙한 미술재료’를 탐색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아울러서 미술영역을 재구성하며 새롭게 제시된 미술재료의 탐색활동도 실시하였다. 영아는 새롭게 제시된 다양한 모양의 하얀색 도화지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였다.

교사: 짜잔. (세모모양 종이를 들며)무슨 모양일까?

하늘: 세모요.

교사: 그래요. 끝이 뾰족뾰족한 세모예요. 또 이 종이는 어떻게 생겼어요?

루리: 동그랄게 생겼어요.

교사: 네. 그래요 동그라미도 있어요.

\* 하늘이와 루리는 동그라미 모양의 종이를 바라본다.

하늘: 하늘이는 얼굴 그릴래.

교사: 아. 하늘이는 동그라미 종이에 얼굴을 그릴거구나.

(2016. 7. 27. 친숙한 재료를 통한 감각적 탐색활동)

영아들은 하얀색의 세모, 네모, 동그라미 모양을 탐색하였다. 영아는 다양한 모양의 종이를 바라보며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늘이는 동그라미 모양의 종이를 탐색한 후 어떤 것을 표현할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는 새롭게 제시된 안전가위도 탐색하고 사용해보았다. 가위 사용의 어려움을 느끼는 영아는 색종이를 손으로 직접 찢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 가위로 어떤 걸 자를 수 있을까?

수인: 종이를 자를 수 있어요.

교사: 그래요. 종이를 자를 수 있어요. 어떤 종이를 잘라볼까? 각자가 자르고 싶은 색종이 가지고 와보세요.

\* 영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색종이를 골라 가지고 온다.

(생략)

\* 하늘이는 가위를 바라본다. 교사가 가위를 주자 하늘이는 가위로 색종이를 오린다.

\* 루리는 색종이의 한쪽 면을 오리는데 잘 오려지지 않는다.

(생략)

교사: (루리를 바라보며) 루리는 가위로 자르기가 조금 어려워요?

루리: 네.

교사: 그러면 손으로 찢어봐도 돼요. 가위로 자르기 어려운 친구는 손으로 찢어봐도 돼요.

\* 하늘이는 색종이 잡고 가로 부분을 나누어 오린다. 가위로 완전히 잘라지지 않자, 하늘이는 가위를 내려놓고 손으로 찢는다. 하늘이는 찢은 색종이를 교사에게 보여주며 이야기한다.

하늘: 이것봐요. 치카치카 양치예요.

교사: 칫솔 같이 되었어요?

하늘: 네. 치카

(2016. 7. 27. 친숙한 재료를 통한 감각적 탐색활동)

하늘이와 루리는 가위를 직접 잡아보고 색종이를 오렸다. 루리는 가위질을 어려워하며 가위를 계속 바꿔달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가위질에 흥미를 잃지 않고,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손으로 찢어보는 방법도 허용하였다. 하늘이도 가위를 사용하다 오려지지 않는 부분은 손으로 찢어보았다. 하늘이는 자신이 가위로 오린 것에 대해 ‘칫솔’이라 명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진 4> 가위와 풀을 탐색하는 영아들

Lowenfeld는 “난화기의 아이는 물감을 사용하면서 크레용을 사용할 때보다 정서적으로 좀더 만족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이전에는 영아들과 미술활동을 하면서 물감을 단순히 크레용의 보조적인 역할로만 주로 사용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물감 탐색활동을 통해 물감을 독자적인 재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영아가 색을 탐색하고 흥미를 느끼도록 하였다. 수채물감을 바로 짜서 사용해보도록 함으로써 영아가 순수 색에 가까운 색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영아가 물감의 색을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탐색을 하도록 하였다.

교사: 선생님이 물감 한 번 짜볼게요. 무슨 색이 있나보자. 짠.

하나: 초록색.

교사: 맞아. 초록색이야.

\* 교사는 초록색 물감을 짠다. 영아는 떨어지는 물감을 쳐다본다.

하나: 초록색이야.

교사: 맞아. 초록색 물감이 떨어졌네.

교사: 이번에는~

하나: 파란색이요.

교사: 파란색 물감 한 번 짜볼까요? 짠.

\* 하늘이는 물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관찰한다.

하나: 파란색이요. 파란색.

(생략)

\* 교사는 노란색 물감을 찐다. 영아는 떨어지는 물감을 쳐다본다.

교사: 자 선생님이 물감을 이렇게 짜봤어요. 어떤 색깔이 있는지 볼까?

영아는 짜 놓은 물감을 바라본다. 하나는 빨간색 물감을 가리킨다.

하나: 이거 빨간색이야. 선생님 이것은 빨간색.

(2016. 8. 3. 감각적 경험을 위한 물감 탐색활동)

연구자는 영아들에게 물감 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아들과 자연스럽게 색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물감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색을 탐색하였다. 하늘이는 물감을 짜는 모습을 보여주자 책상에 더 바짝 앉아 떨어지는 물감에 흥미를 보였다. 하나는 물감에 관심을 보이고, 색의 명칭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았다. 하나와 수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가리키며 색에 대한 기호도 표현하였다. 특히 영아는 물감의 색을 탐색한 후 손가락으로 직접 물감을 만져보면서 감촉을 느끼는 탐색활동을 해 보았다.

교사: 자 선생님이 한 번 짜볼게요.

수인: 빨간색!

\* 교사는 빨간색 물감을 찐다.

교사: 꾸욱~

\* 수인이와 세인이는 소리친다. 교사는 파란색 물감을 꺼낸다.

교사: 이번에는 다른 물감을 짜볼게요. 어떤 색이 나올까? 찐!

수인: 파란색!

\* 세인이는 웃으며 쳐다본다.

\* 교사는 파란색 물감을 찐다.

\* 수인, 세인, 주완이는 전지에 떨어진 물감의 색을 바라본다.

(생략)

\* 수인이는 전지를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수인: 노란색. 수인이는 노란색 좋아해.

(2016. 7. 29. 감각적 경험을 위한 물감 탐색활동)

영아는 손가락에 물감을 묻힌 후 종이에 자유롭게 찍으며 물감의 색과 찍힌 모양을 탐색하였다. 연구자는 영아가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제안하였다. 물감을 찍는 세기에 따라 영아가 다양한 촉감을 느끼게 하여 물감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 하늘이와 하나는 물감을 찍은 후 모양을 탐색하며 명명하였다.

교사: 종이에 한 번 찍어보자. 쏘옥.

- \* 영아들이 종이에 손가락을 찍는다. 하늘이는 종이에 물감이 찍히자, 연속적으로 찍는다. 하늘이는 손가락을 길게 늘려 찍는다.

교사: 이번에는 세게 찍어볼까?

- \* 교사는 세게 찍는다.
- \* 하늘는 자신이 찍은 물감을 바라보며 이야기한다.

하늘: 우와 하늘이다. 하늘이

- \* 하나는 연두색 물감을 종이에 마구 묻히며 바라본다. 그리고는 교사에게 이야기 한다.

하나: 하나다. 하나.

(2016. 8. 3. 감각적 경험을 위한 물감 탐색활동)



<사진 5> 촉감을 활용한 물감 탐색활동

친숙한 재료를 통한 감각적 탐색활동을 진행한 후 사용된 재료를 미술영역에 제공하여 영아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아는 재료를 이용해 자발적으로 놀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하늘이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색을 색종이를 선택하여 접고, 구기는 모습을 보였다. 하늘이는 색종이를 구긴 후 모양을 탐색하였다.

- \* 하늘이는 색종이영역 앞에 서있다. 하늘이는 색종이영역을 바라보고, 분홍색 색종이를 꺼낸다. 하늘이는 색종이를 반으로 접는다. 또 반으로 접는다. 하늘이는 접은 색종이의 모양을 바라본다.(생략) 하늘이는 색종이를 구긴 후 내려놓고, 초록색 색종이를 꺼낸다. 하늘이는 초록색 색종이를 반으로 접는다.

(2016. 7. 29. 자유선택활동)

지우와 루리는 다양한 모양의 종이에 자발적으로 끼적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지우는 동그라미 모양의 종이에 위, 아래로 마구 휘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루리는 동그라미 모양의 종이에 눈,코,입을 그린 후 사람이라고 명명하였다. 루리는 자신이 표현한 종이를 교사에게 보여주며 즐거워하였다. 교사가 루리가 표현한 종이를 게시판에 걸어두자, 루리는 감상하며 자신이 표현한 종이를 가리키는 모습을 보였다.

- \* 지우와 루리는 미술영역에 함께 앉아 있다. 지우는 색연필을 잡고 마구 휘두른다. 루리는 동그라미 모양의 종이에 색연필로 끼적인다. 루리는 동그라미 모양의 종이에 눈을 표현한다.

루리: 이건 눈이야. 눈

- \* 루리는 동그라미 모양의 종이에 선을 긋는다. 루리는 옆에 있는 교사에게 이야기한다.

루리: 선생님. 이건 얼굴이에요. 얼굴.

교사: 우리가 얼굴을 그렸구나. 멋진 얼굴이네.

루리: (웃으며) 얼굴이에요. 얼굴.

(생략)

\* 루리는 게시판 앞에 서서 자신이 표현한 얼굴을 본다. 그리고 하늘이  
에게 웃으며 이야기한다.

루리: (손가락으로 가리키며)이것좀 봐.

(2016. 8. 1. 자유선택활동)

영아는 미술활동 후 제공된 재료로 미술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놀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미술재료의 탐색활동을 통해서 재료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재료를 스스로 탐색하고, 표현함을 볼 수 있었다. 루리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게시판에 게시해주니 가리키며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 2) 미술영역의 재구성

사랑반 미술영역의 재료가 영아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았고, 영아들이 활동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불편하게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아가 미술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랑반의 미술영역을 재구성하여 배치를 다시 하고, 필요한 재료와 비품을 추가로 준비하였다. 첫째, 색종이 게시판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기존의 사랑반 미술영역에도 색종이가 비치되어 있었으나, 바구니 안에 여러 가지 색이 겹쳐 쌓여있었기 때문에 영아가 색종이의 색을 쉽게 탐색할 수 없었고, 색의 선택도 어려웠다. 따라서 색종이 게시판을 추가로 설치해 영아가 쉽게 색을 탐색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영아들의 미술활동을 위해 비치해 둔 인쇄된 달력과 신문을 정리하였다. 인쇄된 달력이나 신문지 위에 어두운 색으로 그림을 그릴 경우 영아

는 글씨와 자신의 표현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영아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도록 하고, 다른 색과 혼동하지 않도록 인쇄된 달력과 신문지를 치웠다.

셋째, 영아들의 활발하고 자유롭게 미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양의 하얀색 도화지를 추가로 준비하였다. 영아가 자신의 굵적거린 흔적을 볼 수 있도록 하얀색 도화지를 준비하였고, 다양한 모양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진 도화지를 준비하였다.

넷째, 사랑반의 영아가 7명인데, 영아들이 미술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은 반원 모양의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때문에 미술활동 시 영아들이 자유롭게 미술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영아들이 책상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툼이 발생하곤 하였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영아들의 편안한 미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랑반의 미술영역에 책상을 하나 더 추가 배치하였다.

다섯째, 미술활동을 실행한 후 미술영역에 활동자료를 제공하였다. 기존의 사랑반의 미술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자료와 교구의 교체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영아의 흥미를 끌기에는 어려웠다. 따라서 활동자료를 제공하여 영아의 흥미를 끌고, 영아가 미술활동을 실행한 후 개별적으로 탐색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사진 6> 기존의 미술영역



<사진 7> 미술영역의 재구성

사랑반의 미술영역을 개선한 후 영아들의 반응을 관찰하였다. 영아들은 변화된 환경에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다가왔다. 미술영역에 책상이 추가되어 편안하게 미술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미술환경에 흥미를 보이는 다수의 영아를 수용할 수 있었다. 또한 영아들은 새롭게 재구성한 미술영역에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며 재료를 탐색하였다.

\* 지우는 미술영역으로 온다. 지우는 교사를 쳐다보며 이야기한다.

지우: 이거.

교사: 새로운 게 생겼지? 색종이 영역이야. 어떤 색이 있지?

\* 지우는 색종이 영역을 쳐다본다.

지우: 이거. 이거.

\* 지우는 초록색 색종이를 가리킨다. 그리고는 초록색 색종이를 꺼낸다.

\* 지우는 미술영역의 교구장 옆에 서서 색종이를 접는다.

교사: 지우 초록색 색종이로 접는구나.

\* 지우는 접은 색종이를 다시 핀다. 그리고는 마구 구긴다.

(2016. 7. 29. 자유선택활동)

\* 지우는 다양한 색상과 형태의 도화지를 쳐다보면서 신기해한다.

지우: 선생님, 이거. 해도 돼요?

교사: 그럼, 지우야.

지우: 네모 형태의 노란색 도화지 위에 색연필을 이용하여 끼적거리기를 한다.

(2016. 8. 4. 자유선택활동)

영아들 중에서 미술활동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지우의 경우에도 새롭게 설치한 색종이 게시판에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였다. 지우는 색종이 영역에서 다양한 색을 탐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도화지에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스스로 선택하여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 3.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 개선을 위한 1차 실행 평가

사랑반 영아들이 미술활동에 호기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미술영역을 재구성하고, 친숙한 재료를 통한 감각적 탐색활동을 진행하고, 활동 자료를 미술영역에 제공하였다. 영아들은 바뀐 미술영역에서 새로운 재료의 색과 모양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와 함께 친숙한 미술재료를 탐색하고 직접 사용해봄으로써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을 알 수 있었다. 물감 탐색활동을 통해 물감의 색을 탐색하고, 손가락으로 촉감을 느껴보았다. 영아는 손가락으로 물감을 종이에 찍어 나온 모양을 명명하기도 하였

다. 미술활동을 실행한 후 활동자료를 미술영역에 배치하자, 몇몇 영아는 미술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은 미술활동에 대한 경험이 많은 3~4명이 반응을 보이는 정도에 그쳤으며, 나머지 영아는 미술활동에 금방 흥미를 잃고 자리를 떠나기도 하였다. 1차 미술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실행에 계획된 재료 탐색활동은 기존의 미술활동에 호기심을 보이는 소수의 영아들의 반응에 기초하여 계획되었기 때문에 미술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던 영아들이 호기심을 느끼거나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였다.

둘째, 영아가 다양한 방법으로 재료를 탐색하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전의 미술활동에서는 영아가 재료 탐색의 시간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였고,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표현기법을 모방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무엇보다도 영아들은 재료 탐색활동을 통해 재료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 또한 탐색활동을 진행하며 미술 활동의 결과물을 산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영아와 상호작용할 수 있었다.

연구 전 미술활동 시 교사가 표현활동에만 집중하여 재료에 대한 탐색을 간과했는데 오늘 미술활동을 통해 영아에게 자율적인 시간을 주고, 재료 탐색에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교사 스스로도 미술활동 시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영아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

(2016. 7. 27. 연구자 저널)

셋째, 영아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재료를 탐색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미술영역에 자료를 제공한 결과 스스로 미술영역에서 미술놀이를 하는

영아들의 수가 늘어났다. 지우의 경우 이전보다 자유놀이시간에 색종이 영역에 흥미를 보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색의 색종이에 끼적이는 활동을 많이 하였다. 그리고는 연구자에게 다가와 자신이 표현한 것을 보여주며 함께 상호작용 해주기를 원하였다. 세인이와 루리도 하얀 도화지의 모양을 탐색하며 함께 크레파스로 끼적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주완이와 수인이의 경우 친숙한 재료에 관심을 보이다가도 금방 다른 놀이 영역에 흥미를 보이며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연구자는 영아의 흥미를 끌 수 있고,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후각적 탐색 기회를 갖도록 하는 다양한 미술 재료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넷째, 미술활동에서 교사가 영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영아들이 미술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돕고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었다. 연구자가 미술재료의 탐색방법을 지시함으로써 영아가 연구자를 모방하는 미술활동이 이루어지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영아는 재료를 탐색하다가도 쉽게 호기심을 잃고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가 영아의 탐색에 지나치게 개입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영아가 창의적인 사고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격려해주어야 했는데, 영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도록 지켜보기 보다는 많은 지시를 하였던 것 같다.

(2016. 8. 3. 연구자 저널)

#### 4.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 개선을 위한 2차 실행

1차 미술활동 실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인 미술활동에 호기심을 보이는 영아가 소수라는 점과 미술활동에서의 교사의 지나친 개입을 개선하고 보완하

기 위하여 2차 미술활동을 계획하였다. 2차 미술활동을 위해 첫째,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계획하였으며 둘째, 입체 표현활동 및 감상활동과 셋째, 미술활동을 위한 환경 재구성을 계획하였다.

위의 계획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계획하였다. 영아가 다양한 재료를 보고, 만지면서 미술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였고, 활동에 반응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다음 활동을 계획하였다. 연구자는 재료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태도를 격려하며 충분한 탐색시간을 제공하여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영아의 표현을 격려하고, 영아 자신의 흥미에 따라 아이디어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차 미술활동 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였다. 즉 영아 주도적인 탐색을 위해서 연구자의 개입을 줄이고, 미술활동 시 영아를 지지하고 기다려주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둘째, 입체표현활동 및 감상활동을 계획하였다. 영아가 재료를 자세히 탐색하고, 공간을 중심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영아의 작품을 교실환경에 전시하여 친구와 함께 감상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영아들이 미술활동에 호기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개별 활동의 지원을 위해 미술영역의 환경을 다시 재구성하였다. 2차 미술활동의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한 미술활동 및 자료제공

1차 활동의 평가를 통해 2차 미술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계획하였다. 사용된 미술재료는 강숙자(2008)가 제시한 미술재료

선택 시 유의점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영아의 발달 수준의 적합성, 둘째, 위생성과 안정성, 셋째, 경제성, 넷째, 영아의 흥미와 요구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차 실행을 위해 선정된 재료는 모두 4가지이다. 처음 선정한 재료는 여름야채이다. 여름야채는 영아들이 원과 가정에서 생활하며 많이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활동의 재료로 선정하였다. 이후 생크림과 커피여과지를 재료로 선정하여 영아가 평면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으로는 자연물의 색을 탐색할 수 있으며,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밀가루 반죽을 선정하였다.

#### (1) 야채도장 찍기

영아들과 함께 여름야채 도장을 찍기 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사용된 야채 재료는 파프리카, 감자, 당근, 오이이다. 영아들은 여름야채를 보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으며 탐색하였다. 영아들은 여러 가지 여름야채 중 파프리카를 선호하였다. 파프리카를 탐색하며 손으로 살짝 만져보고, 두 손으로 들어보기도 하였다.

여름야채를 탐색한 후 영아는 흰 도화지에 찍어보았다. 연구자가 영아의 표현에 관심을 보이며, 격려하자 영아는 미술표현에 더 흥미를 느꼈다. 루리는 파프리카 도장을 찍으며 즐거워하였다. 양손에 야채도장을 들고 두들기는 모습도 하였다. 연구자가 루리의 표현에 관심을 보이고, 재료를 제공하며 지원하자 표현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였다. 하늘이는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 명명하였고, 하고 싶은 색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루리: (수인이의 파프리카 도장을 바라보며) 나도. 파프리카 도장.

\* 루리는 파프리카 도장을 찍고 모양을 바라본다. 그리고는 종이 위에

연거푸 찍는다. 양 손에 오이, 파프리카를 잡고 번갈아 두들긴다. 그리고 웃는다.

교사: 우와 루리가 많이 찍어놨네.

\* 루리는 종이를 바라보며 웃는다.

교사: 다른 종이도 좋을까?

루리: 네.

\* 루리는 새 종이에다 다시 야채도장을 찍는다. 하나는 오이도장을 길게 눌러서 찍는다.

하늘: 다 찍었어요.

교사: 하늘이 뭐를 찍었어요?

하늘: 하늘이 엄마, 아빠.

하늘: 다른 색깔로 해볼래. 주황색으로도 해볼래.

(2016. 8. 10. 야채도장 찍기)



<사진 8> 야채 도장을 찍는 영아들

## (2) 생크림 그림 그리기

본 연구자는 영아들이 다양한 감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재료에 흥미를 보였다는 점을 파악하여 다음 활동의 재료로 생크림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생크림을 먹어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여 영아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 후, 영아가 오감을 통해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아는 생크림을 맛보며

더욱 흥미를 보였다. 영아에게 미각을 활용한 탐색 활동은 생소하였기에 영아가 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사: 자. 이것이 뭘까? 너희 본 적 있니?

하나: 아이스크림.

교사: 하나는 아이스크림 같구나. 이거는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한데 생크림이라는 거야. 너희 케이크 먹어본 적 있니?

(생략)

교사: 케이크 냄새가 나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맛인지 한 번 먹어볼까?

- \* 교사는 스푼으로 생크림을 살짝 떠서 하나에게 준다.
- \* 하나는 스푼을 맛본다. 하나는 생크림을 먹고 팔을 흔들며 미소를 보인다.

하나: 생크림 맛있어요.

교사: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생크림을 한 번 쪽 짜볼게. 짬~

- \* 교사가 책상 위에 생크림을 짜자 영아는 쳐다본다. 영아들은 생크림이 책상 위에 쌓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친다.

영아들: 와~

루리: 생크림 케이크 같아요.

교사: 손으로 한번 만져볼까?

- \* 교사가 검지 손가락으로 생크림을 누르자 루리도 따라 누른다.

(2016. 8. 17. 생크림 그림 그리기)



<사진 9> 생크림으로 그림을 그리는 영아들

### (3) 커피 여과지로 색 번짐 관찰하기

연구자는 커피 여과지를 미술 재료로 선정하여 연구자의 지나친 개입을 줄이고, 영아가 자유롭게 표현을 즐길 수 있도록 격려했다. 영아에게 커피 여과지를 제시하자 영아는 보고, 만지며 탐색하였다. 싸인펜을 자유롭게 제시하였는데, 하나의 경우 색에 대한 기호를 보이며 특정 색깔을 선택하는 모습이었다. 영아들은 커피 여과지에 싸인펜을 대어보며 잉크가 번지는 모양을 관찰하였다. 하늘이는 잉크의 모양을 명명하였다.

\* 영아는 두 손으로 커피여과지를 만진다.

(생략)

하나: 선생님 나 핑크색.

교사: 하나는 핑크색 싸인펜이 쓰고 싶구나. 너희들이 좋아하는 색을 골라보자.

\* 하늘이는 빨간색 색연필을 고른다. 하늘이는 커피여과지에 싸인펜을 댄다. 커피여과지에 점이 찍힌다.

\* 하늘이는 다시 싸인펜을 여과지에 대어본다.

(생략)

\* 하늘이는 점을 찍다가 이야기한다.

하늘: 선생님. 괴물이다. 괴물.

(2016. 8. 24. 커피 여과지로 색 번짐 관찰하기)

루리는 미술영역에 제시한 커피여과지에 자발적으로 표현하였다. 루리는 자신의 난화를 자두나무라고 명명하였다. 연구자는 루리가 자두나무에 대한 인식을 떠올릴 수 있도록 자두나무의 크기와 열매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루리는 연구자의 질문을 듣고 상상하며 싸인펜으로 표현하였다. 연구자가 루리가 그린 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자 루리는 더 끼적이며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루리: 선생님 나무예요. 빨간 나무.

교사: 아. 빨간 나무구나. 나무가 많이 있네.  
 \* 루리는 커피여과지에 동그라미를 연속해서 그린다.  
 (생략)  
 교사: 루리야. 이 나무에 뭐가 열렸어?  
 루리: (웃으며) 자두~  
 교사: 아. 자두나무구나. 자두가 많이 열렸네?  
 \* 루리는 커피 여과지를 가리키며 웃는다.  
 루리: 자두~자두~  
 교사: 루리가 그린 자두 맛있겠다.  
 루리: (웃으며) 자두

(2016. 8. 26. 자유선택활동)



<사진 10> 커피 여과지에 싸인펜으로 끼적이는 영아들

#### (4) 밀가루 반죽 놀이

부드럽고 유연한 밀가루 반죽을 이용하여 입체적 표현활동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자연물 줍으로 밀가루를 반죽하여 영아가 자연적인 색채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영아는 밀가루 반죽에 호기심을 보이며 자발적으로 시각과 촉각으로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하나와 수인이는 미술영역으로 다가온다.

하나: 선생님 노란색이요.

교사: 그래. 무슨 색이 있니?

(생략)

교사: 그래요. 여러 가지 색이 있는 밀가루 반죽이지요. 선생님이 밀가루 반죽을 나누어줄테니까 한번 만져보도록 해요,

\* 교사는 밀가루 반죽을 나누어준다. 하나는 밀가루 반죽을 만진다.

하나: 선생님 나. 풀리만들래.

수인: 나는 상어 만들래요.

하늘: 나는 엄마.

\* 하늘이는 반죽을 동글게 굴린다.

(2016. 8. 31. 밀가루 반죽 놀이)



<사진 11> 밀가루로 반죽 놀이하는 영아들

지우와 세인이가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밀가루 반죽으로 놀이를 하고 있자, 주완이는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다. 교사가 함께 놀이하자고 제안하자 주완이는 밀가루 반죽놀이에 참여하였다. 지우가 밀가루 반죽을 두드리자, 주완이는 모방하여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 지우는 점토를 마구 주무른다. 지우는 점토를 마구 주무른다. 세인이는 두 손을 모아 점토를 비빈다.

지우: 이거 떡이에요. 떡.

\* 주완이는 밀가루 반죽 놀이하는 곳으로 다가온다.

교사: 주완이도 반죽 놀이 같이 할래?

주완: 네.

\* 주완이는 책상에 앉는다. 지우는 색 점토를 층층이 쌓고 교사에게 보여준다.

지우: 이거봐. 이거. 빵빵 빵빵

(생략)

\* 주완이는 밀가루 반죽을 주물거린다. 지우는 밀가루 반죽을 두드린다. 주완이는 밀가루 반죽을 두 손으로 두드린다.

(2016. 9. 1. 자유선택활동)

주완이는 지우와 세인이가 함께 밀가루 반죽놀이를 하고 있으니, 관심을 보이며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소 주완이는 미술영역에서 놀이하 기보다는 쌓기영역이나 역할놀이영역에서 주로 놀이하곤 하였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 2) 입체 표현활동 및 감상활동

밀가루 반죽 놀이와 미술영역에서의 폐품을 활용한 만들기를 통해 영아가 입체 표현 활동에 흥미가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입체 표현 활동을 계획하였다. 입체 표현 활동을 위한 미술활동 재료로 플레이콘과 컬러점토를 선정하여 입체 표현 활동을 시행하였다. 영아는 연구자가 준 재료를 자세히 탐색하고 공간을 중심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영아의 작품을 교실환경에 전시하여 친구와 함께 감상하는 경험을 하게 하였다. 연구자는 영아의 작품을 활용한 미술 감상활동을 진행하여 영아가 자신과 친구의

작품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표현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모든 사랑반 영아들의 작품을 영아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시하였다.

#### (1) 플레이콘 붙이기 활동 및 감상활동

연구자가 ‘플레이콘’을 제시하자 영아들은 만지고, 굴리고, 붙이며 다양하게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는 영아들에게 지시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기다리며 지켜보았다. 영아는 플레이콘을 탐색하고 표현하였다. 영아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표현하였다. 영아는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루리의 경우 교사와 함께 읽었던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고래를 표현하였다.

루리: 루리 고래 만들었어. 고래.

교사: 루리가 만든 고래 멋지네. 루리가 만든 고래 어떻게 생겼어요?

루리: (웃으며) 뚱뚱한 고래. (끝을 가리키며) 꼬리야. 고래는 컷어요.

\* 루리는 초록색 플레이콘 하나를 붙인다.

루리: 입이에요.

(2016. 9. 7. 플레이콘 붙이기)

플레이콘 붙이기 활동을 한 후 연구자는 게시판에 영아들이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였다. 영아들은 자신과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며 즐거워하였으며, 자신과 친구의 작품을 함께 살피며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 지우는 자신이 만든 것을 가리킨다.

지우: 문어. 문어.

\* 하늘이는 소리친다.

하늘: 고래! 고래도 있어요. 큰 고래가 살아요.

교사: 그래 고래도 있지. 그리고 주완이가 만든 거북이도 있네.

\* 주완이는 미소를 보인다. 세인이는 자신이 표현한 것을 가리킨다.

수인: 수인이도 꽃게, 꽃게 만들었어.

(2016. 9. 12. 자유선택활동)



<사진 12> 플레이콘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영아들

## (2) 컬러 점토 놀이 및 감상활동

영아는 미술 재료인 ‘컬러점토’를 탐색하였다. 영아들은 컬러 점토를 주무르고, 굴리고, 누르며 자발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자는 영아들이 미술재료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였다.

\* 루리는 점토를 점토판에 두고 손바닥으로 누른다.

교사: 루리는 꼭꼭 눌러주네?

\* 하늘이는 루리를 바라본다. 그리고 하늘도 손바닥으로 점토를 눌러본다.

\* 하늘이는 뭉쳐있던 점토를 작게 떼어낸다.

\* 루리는 빨간색 점토와 초록색 점토를 섞어 굴린다.

(2016. 9. 14. 컬러 점토 놀이)

영아들은 컬러점토로 표현하는 과정 자체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완이는 무엇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활동 과정을 즐기는 모습이 었다. 연구자는 영아가 표현활동에 지속적인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영아의 표현을 격려했다.

\*주완이는 점토를 바닥에 굴린다. 주완이는 점토를 굴리며 노래를 부른다.  
주완: 굴러간다 굴러간다.  
교사: 점토를 굴리니 점점 길어지네? 쪽쪽  
\* 주완이는 점토를 두 손으로 굴린다.  
주완: 둥글둥글둥글둥글. 선생님 이것 좀 봐요.  
교사: 길었던 점토가 동그래졌어.

(2016. 9. 14. 컬러 점토 놀이)

연구자는 영아와 상호작용하며 영아의 표현에 사실적인 묘사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영아의 표현을 격려하고 사고를 자극할 수 있도록 발문해야하는데 연구자는 사실적인 표현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하늘이가 점토로 토끼를 표현하자, 연구자는 토끼의 사실적인 묘사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하였다.

\* 하늘이는 점토를 둥글게 굴린다.  
하늘: 토끼예요. 토끼.  
교사: 하늘이가 토끼 만들었구나. 토끼 귀는 어디 있어?  
하늘: 어. 토끼 귀는...  
교사: (점토를 가리키며) 토끼 귀를 붙여줘야겠다.  
\* 하늘이는 점토를 바라본다. 점토를 다시 굴린다.

(2016. 9. 14. 컬러 점토 놀이)

영아가 표현한 컬러점토를 미술영역에 전시하여 친구와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컬러점토는 책상 위에 전시하여 모든 영아가 감상할 수 있도록

록 하였다. 전시를 통해 영아는 자신과 친구의 작품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영아는 자신이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자 즐거워하며, 소리치고 연구자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가 미술 작품의 결과물을 전시해서 보여주자 영아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 영아들은 전시 위를 바라본다.

하나: 하나 코끼리!

교사: 그래. 하나가 만든 코끼리가 있네. 주완이가 만든 코끼리도 있고.

루리: 원숭이요!

교사: 원숭이도 있고

수인: 토끼! 강총강총

\* 수인과 세인은 서로 바라보고 웃는다.

(2016. 9. 19. 자유선택활동)



<사진 13> 점토로 표현하는 영아들

### 3) 미술활동을 위한 환경의 재구성

영아들이 미술활동에 보다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영아들이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교구와 재료를 준비하여 미술 활동에 적용하였다.

첫째, 사랑반에 색에 관심을 보이고 기호를 표현하는 영아가 있어서 미술

영역에 색을 탐색할 수 있는 교구를 제공하여 색을 즐기고 느끼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색 탐색교구’를 준비하여 제공하였다. 그러자 대부분의 영아들이 ‘색 탐색 교구’에 관심을 보이며 관찰하고 탐색하였다. 하나와 하늘이는 주변환경의 색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 하나와 하늘이는 함께 서있다.

하나: (자신의 옷을 가리키며) 하나는 핑크!

\* 하나는 웃으며 하늘이의 옷을 쳐다본다.

하나: 하늘이는 노란색 입었네?

하늘: 맞아. 하늘이는 노란색이야.

(2016. 8. 11. 자유선택활동)

둘째, 연구자는 영아들에게 다양한 질감의 재료를 제공하였다. 즉, 골판지, 호일, 셀로판지, 사포를 준비하여 영아들이 촉감을 통해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아들은 다양한 질감의 재료를 구기고, 찢고, 끼적이며 탐색하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너무 많은 종류의 재료를 제시하여 영아의 탐색을 방해하며 혼란을 주기도 하였다.

\* 세인이는 미술영역에 앉아서 바구니 안을 살핀다. 세인이는 바구니에서 셀로판지를 꺼낸다. 세인이는 마구 구긴다. 세인이는 다시 셀로판지를 꺼내 구긴다. 세인이는 바구니를 엮어 재료들을 뒤엎는다. 그리고는 다시 펼쳐놓는다. 세인이는 재료를 던지다가 역할영역으로 자리를 옮긴다.

(2016. 9. 1. 자유선택활동)

처음 세인이는 다양한 질감의 재료에 관심을 보이며 셀로판지를 구기며 탐색하였다. 그러다 세인이는 바구니 속 다른 많은 재료를 보고 바구니를 엮고 펼치는 모습을 보였다. 미술재료로써 다양한 질감의 재료를 탐색하기

보다는 쏟고 펼치는 과정에 더 흥미를 느끼는 모습이였다. 세인이는 재료를 쏟고 닫는 행동에서 흥미가 떨어지자 다른 영역으로 향하였다. 많은 재료를 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후 수정하여 두 가지의 다른 질감의 종이를 놓고, 영아가 놀이를 충분히 하였으면, 다른 질감의 종이를 하나씩 첨가해 제공하였다.



<사진 14>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탐색하는 영아들

셋째, 연구자는 영아가 미술활동 시 자신의 생각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폐품을 준비하여, 재료 및 크기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였다. 미술활동에 사용되는 폐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들이기에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영유아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재료이다. 그러나 사랑반의 폐품 재료는 바구니 하나에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사랑반의 영아에게는 입체 표현 활동이 생소하였기 때문에 풀이나 테이프로 쉽게 붙일 수 있는 종이 상자, 스티로폼 조각 등을 가지고 단순한 구성 활동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폐품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제시하자 영아들은 재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탐색하는 모습이였다. 영아는 폐품을 만지고 보며 두드리며 탐색하였다. 재료의 탐색이 끝난 후 영아들은 폐품을

이용해 단순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구성하며 즐거워하였으며, 자신이 구성한 작품을 명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진 15> 폐품을 활용하여 입체 표현하는 영아

#### 5.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 개선을 위한 2차 실행 평가

만 2세 사랑반 미술 활동 개선을 위한 2차 실행은 미술영역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미술활동과 입체 표현활동 및 감상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연구자 스스로 활동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다음 활동을 개선하고 계획하는 형태로 실시하였다. 2차 실행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가 자발적으로 재료를 탐색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영아는 재료를 자유롭게 만지고, 냄새 맡고, 누르고, 찍어보며 감각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자는 영아가 재료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고 기다려주었다. 재료 탐색을 통해 영아는 재료의 특성과 활용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재료와 도구에 익숙해지고 미술 표현에 꼭 필요한 조작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둘째, 영아의 미술영역에 대한 흥미가 증가하였다. 2차 실행을 통해 연구자는 미술영역에 새로운 교구와 재료를 제공하였다. 연구자는 ‘색 탐색 교구’와 다양한 질감의 종이, 폐품을 제공하였다. 영아는 새로운 재료에 흥미를 보이며 미술놀이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영아는 ‘색 탐색 교구’로 놀이하며 색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실 안 물건들의 색을 찾아보며 나타내었다. 골판지, 호일, 셀로판지, 사포와 같이 다양한 질감의 종이도 제시하였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종류의 종이를 제시하여 영아들이 혼란을 느끼고 미술활동에 어려움을 느꼈다. 이후 수정하여 두 가지의 다른 질감의 종이를 놓고, 영아가 놀이를 충분히 하였으면, 다른 질감의 종이를 하나씩 첨가해 제공하였다. 폐품에 대한 분류를 통해 영아는 자신이 원하는 폐품 재료를 쉽게 선택할 수 있었고, 단순히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을 재구성하여 제공하였을 때 영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술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셋째,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촉진되기 시작하였다. 영아는 친구의 표현에 관심을 보이며 관찰하고, 모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서로 바라보며 눈을 맞추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영아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에도 또래와의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영아는 친구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는 영아가 친구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영아는 친구와 함께 작품을 감상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공유하고 교감하였다.

넷째, 미술활동 시 연구자의 상호작용이 개선되었다. 미술활동에 몰두해 있는 영아를 기다려주고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창작 중인 영아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표현하는 과정 중에 연구자는 영아의 표현에 관심을 보이면서 격려하여 영아가 표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영아와의 상호작용 시 간혹 영아의 표현에 가치 판단적인 표현을 하

며 사실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미술활동을 실행하며 영아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발문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 6. 만 2세 사랑반 미술활동에서 나타난 영아의 변화

수집된 현장자료(참여관찰, 비디오 촬영과 사진촬영, 저널)와 관련문헌들을 분석하고 살펴본 결과, 미술활동을 하는 동안 영아들의 행동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영아들이 보인 행동 변화를 몇 가지로 분류한 결과 변화의 유형은 첫째, 재료에 대한 관심 보이기, 둘째, 선생님과 함께 표현하기, 셋째, 자발적으로 표현하기, 넷째, 친구와 상호작용하기로 나타났다. 제시된 유형에 따라 영아의 행동 변화가 관찰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재료에 대한 관심 보이기

영아들은 연구자가 주는 미술재료에 호기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였다. 미술영역에 흥미가 없던 영아도 관심을 보이며 다가와 응시하며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들은 재료를 다양한 감각기관을 이용해 탐색하였고 연구자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였다. 영아에 따라 재료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하는 방식은 상이하였다. 하늘이와 같은 경우 재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재료를 탐색하는 과정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주완이의 경우 재료에 관심은 있지만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는 모습이였다. 연구자는 주완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해 친구들의 탐색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다려주었다. 주완이가 재료를 탐색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비로서 연구자는 주완이에게 권유하여 함께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 영아들이 교사와 함께 미술 재료인 파프리카를 탐색한다.

\* 주완이는 미술영역 교구장 옆에 서있다.

교사: 그럼 냄새도 한 번 맡아볼까?

\* 영아들은 냄새를 맡는다. 주완이는 서서 파프리카를 쳐다보기만 한다.

루리: 파프리카 예뻐요. 좋은 냄새가 나요.

교사: 우리가 냄새 맡아봤구나. 파프리카에는 좋은 냄새가 나지? 주완이도 파프리카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볼까?

\* 주완이는 파프리카의 냄새를 맡으며 미소를 띄운다.

(2016. 8. 10. 야채도장 찍기)

영아들은 감각기관을 이용해 미술 재료를 탐색하였다. 연구자는 영아들이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고, 연구자와 영아 간 그리고 영아와 영아 간 친밀한 상호작용을 위해 다양하게 개방적 질문을 하였다. 지우의 경우 미술재료를 탐색하며 자신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탐색활동을 즐기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지우는 미술 재료를 직접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였다.

교사: 우리 생크림 냄새 한 번 맡아 볼까?

\* 지우는 생크림으로 얼굴을 가까이 한다. 지우는 미소를 보인다.

교사: 어떤 냄새가 나요?

지우: 달콤한 냄새.

교사: 그래. 달콤한 냄새가 나지? 이번에는 살짝 먹어볼까?

\* 교사는 손가락으로 생크림을 조금 떠서 영아에게 먹여준다.

교사: 어때요? 맛이?

수인: 맛있어요.

\* 지우는 미소를 보인다.

지우: 맛있어요.

교사: 그래요. 이제는 선생님이 생크림을 한 번 짜볼게. 짬뽕.

\* 교사는 생크림을 짬다. 세인, 지우는 소리치며 웃는다.

## 2) 선생님과 함께 표현하기

미술활동을 진행하면서 영아들이 연구자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에서 벗어나 점차 연구자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연구자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묻는 모습에서 점차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연구자는 초기에는 활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영아에게 표현방법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활동 평가와 영아의 자발적인 재료 탐색 모습을 발견하고 연구자의 개입을 점차 줄이고 영아의 표현을 격려하고 존중하였다. 영아들은 연구자와 함께 하는 미술활동에 능동적인 관심을 보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루리는 미술재료로 표현하고 연구자에게 이야기하며 상호작용하였다. 연구자는 루리와 함께 미술재료로 바닷속을 표현하였다. 연구자가 미술활동에 함께 참여하자, 루리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 루리는 생크림을 문지르며 이야기한다.

루리: 애기 물고기. 애기

\* 루리는 손바닥을 짹 펴서 동그라미를 그린다.

교사: 루리는 동그라미를 그리네.

루리: 상어같이 생겼네. 상어. 아빠 상어.

교사: 선생님이 애기 상어 한번 그려줄까?

\* 루리는 교사가 그리는 그림을 바라본다.

루리: (그림을 그리며) 어. 해초예요. 해초

루리: (손가락으로 굽으며) 바닷속에 물고기가 살아요.

물고기.

(2016. 8. 17. 생크림 그림 그리기)

주완이의 경우 미술 재료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으나,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는 세인이가 만든 빵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구자와 함께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완이는 연구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함께 표현하였다. 그리고 표현한 것을 통해 연구자 함께 상상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인: 선생님. 빵 됐어. 빵.

교사: 어머. 세인이 빵 맛있겠네? 선생님도 빵 만들었는데.

\* 주완이는 교사가 만든 것을 바라본다. 주완이도 자신이 만들던 것을 교사에게 보여준다.

주완: 빵이에요. 샌드위치 빵.

교사: 주완이 샌드위치도 맛있겠는데.

주완: (빵을 건내며) 먹어요.

\* 교사는 먹는 시늉을 한다.

교사: 맛있네. 주완이 세인이도 줘볼까?

주완: 네.

(2016. 8. 31. 밀가루 반죽 놀이)

하늘이와 하나의 경우 연구자가 재료를 이용하여 표현할 때, 연구자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연구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밀가루 반죽을 다양한 방법으로 주무르며 표현하였다. 표현한 밀가루 반죽은 스스로 이름을 붙이며 명명하였다. 하늘이는 자신의 표현에 대해 명명하며 연구자와 상호작용하였다. 연구자는 영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언어로 묘사하여 영아의 표현활동에 흥미를 높였다. 하늘이는 연구자와 함께 다양하게 밀가루 반죽으로 표현하며 혼자서 놀이할 때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미술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 선생님은 이렇게 반죽을 굴러볼거야.

\* 하늘이와 하나는 반죽을 굴린다.

교사: 밀가루 반죽이 옆으로 길어졌네?

\* 하늘이는 계속 굴린다.

하늘: 길어졌지요?

교사: 노란색 밀가루 반죽이 아까보다 길어졌네.

\* 하늘이는 반죽을 주무른다. 수인이는 하늘이를 바라보고 반죽을 주무른다. 하늘이는 교사에게 보여준다.

하늘: 선생님 거북이야. 거북이.

\* 수인이는 하늘이를 쳐다보고 이야기한다.

수인: 거북이

\* 하늘이는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조금씩 떼어본다.

(2016. 8. 31. 밀가루 반죽 놀이)

### 3) 자발적으로 표현하기

영아들이 다양한 미술재료를 이용해 미술활동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미술 표현을 즐기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처음에는 소극적인 형태의 참여에서 점차 영아 스스로 미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재료를 스스로 탐색한 후 자신이 표현할 것에 대해 연구자에게 먼저 이야기하며 주도성을 보이는 영아도 있었다. 연구자는 영아들의 표현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고 영아들의 노력을 인정해주었다. 지우는 점토를 자유롭게 주무르며 표현하고 명명하였다. 연구자가 관심을 보이자 지우는 계속 표현하며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자신이 표현한 것을 명명하였다.

\* 지우는 빨간색 점토를 주무른다. 세인이는 빨간색 점토를 손으로 잡아본다.

지우: 눈사람 만들었어. 눈사람.  
교사: 멋진 빨간 눈사람이네.  
\* 지우는 점토를 마구 주무른다.  
지우: 이거 떡이에요. 떡.

(2016. 9. 14. 컬러 점토 놀이)

영아는 자발적으로 표현하며 명명하였다. 연구자는 영아의 표현에 관심을 보이고 사물의 특징을 생각하도록 질문하여 영아의 창의적 표현을 도왔다. 하늘이는 스스로 자동차를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질문을 통해 하늘이가 자동차에 대해 상상하고 특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늘이는 자동차를 상상하며 세부적으로 묘사하여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늘: 자동차야.  
교사: 하늘이. 자동차를 그렸구나. 자동차가 크구나.  
하늘: 커요.  
\* 하늘이는 끼적인 것에 점을 찍는다.  
하늘: 바퀴는 여기 있어요.  
교사: 그 자동차는 빠른 자동차니?  
하늘: 네. 빠른 자동차예요.  
\* 하늘이는 계속 여과지에 끼적이다.

(2016. 8. 24. 커피 여과지로 색 번짐 관찰하기)

#### 4) 친구와 상호작용하기

사랑반의 영아가 적극적으로 미술 활동하는 모습이 많아질수록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더 많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미술활동이 실행된 초기에는 친구의 모습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극히 드물었으나 3차 실행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표현 뿐만 아니라 친구의 표현에도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초기 미술활동 영아의 친구와 상호작용에서는 친구를 모방하여 표현하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었다. 수인이는 하늘이의 표현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였다. 하늘이가 반죽을 주무르자 수인이는 모방하여 표현하였다. 수인이는 하늘이의 표현에 관심보이며 상호작용하였다.

- \* 하늘이는 반죽을 주무른다. 수인이는 하늘이를 쳐다본다.
  - \* 수인이는 하늘이를 따라서 반죽을 주무른다.
  - \* 하늘이는 교사에게 자신이 표현한 것을 보여준다.
- 하늘: 선생님 거북이야. 거북이.
- \* 수인이는 하늘이를 쳐다보고 이야기한다.
- 수인: 거북이 만들었어?
- 하늘: 응.
- 수인: 수인이라도 거북이야.

(2016. 8. 31. 밀가루 반죽 놀이)

하나, 하늘이는 함께 밀가루 반죽놀이를 참여하였다. 하늘이가 샌드위치를 만들자 하나는 관심을 보이며 쳐다보았다. 하늘이는 자신이 표현한 샌드위치를 하나에게 먹여주며 상상놀이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 하늘: 샌드위치예요.
- 교사: 우와. 하늘이가 만든 샌드위치 맛있겠는데. 선생님 한 번 먹어볼까?
- \* 교사는 하늘이가 만든 밀가루반죽을 먹는 시늉을 한다.
  - \* 하늘이는 웃음을 보인다. 하나는 하늘이가 만든 샌드위치를 쳐다본다.
- 하나: 나도.
- \* 하늘이는 만든 샌드위치를 하나에게 준다.
  - \* 하나는 먹는 시늉을 한다.
  - \* 하늘이와 하나는 바라보며 미소를 보인다.
  - \* 하늘이는 만든 샌드위치를 하나에게 준다.
- 하늘: 이거 만져봐
- \* 하나는 밀가루 반죽을 두 손으로 꺾꺾 누른다.

(2016. 8. 31. 밀가루 반죽 놀이)

미술활동 3차 실행에서는 영아의 작품을 전시하여 영아가 친구와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아는 자신의 작품과 친구의 작품이 같은 공간에 함께 전시되니 즐거워하며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음을 보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였다. 영아는 자신이 표현한 작품을 가리키며 친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였다. 미술 작품의 결과물을 전시해줌으로써 영아들 스스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었다.

\* 지우는 작품이 전시된 공간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온다. 지우는 하나를 부른다.

\* 영아들은 책상에 모여 앉는다. 지우는 자신이 만든 것을 가리킨다.

지우: 문어. 문어.

교사: 바다 속에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문어도 있고.

\* 하늘이는 소리친다.

하늘: 고래! 고래도 있어요. 큰 고래가 살아요.

교사: 그래 고래도 있지. 그리고 주완이가 만든 거북이도 있네.

\* 주완이는 미소를 보인다. 세인이는 자신이 한 것을 가리킨다.

세인: 세인이도 거북이 만들었어요.

교사: 그래. 바다 속에 하양이 친구들이 많이 사네.

수인: 수인이도 꽃게, 꽃게 만들었어.

(2016. 9. 7. 자유선택활동)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희망어린이집 만 2세 사랑반 영아들의 미술활동에 대한 실험연구로, 연구자가 영아 미술활동 실행 및 평가 시 인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아의 미술활동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평가결과와 개선과정에서 나타난 영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 및 개선 과정

만 2세 사랑반 미술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 5월 16일부터 2016년 7월 24일까지 사전 관찰을 통해 미술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사랑반의 미술활동은 영아가 재료를 탐색할 시간이 부족하고, 교사가 지나치게 표현기법을 모방하도록 지도하여 미술활동에 소극적으로 반응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미술활동이 평면 표현활동 위주로 진행되고, 미술영역의 환경구성이 공간이 협소하고, 영아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서 영아가 미술영역에 흥미를 갖기에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랑반 영아의 미술활동을 1차, 2차로 나누어 실행하였다.

본 연구자가 실시한 미술활동의 실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실행과정은 첫째, 친숙한 재료를 통한 감각적 탐색활동을 진행하였고, 미술활동에 사용된 재료를 미술영역에 제공하여 영아가 개별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영아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료를 탐색하고 재료의 특성

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아동들은 재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재료를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을 발견하며 또 다른 재료를 탐색하려는 시도를 하게된다는 이현주(2007)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결과이다. 연구자 또한 재료 탐색 활동을 진행하며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영아와 상호작용할 수 있었다.

둘째, 미술영역을 재구성하였다. 색종이 게시판과 책상, 그리고 영아들이 다양한 모양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진 도화지를 준비하였다. 아울러서 영아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인쇄된 달력과 신문물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영아는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보이며 바뀐 미술 영역의 재료를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미술놀이영역이 교사의 의지를 통하여 변화되고 교사들의 허용이 이루어졌을 때, 영아들이 적극적으로 놀이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김은영(2014)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연구자는 1차 미술 실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활동에 자발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영아가 소수였고, 친숙한 재료에 관심을 보이다가도 다른 영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미술활동 시 연구자는 영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영아들이 미술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돕고 기다리기보다는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차 미술활동 시에는 첫째, 여름야채 및 생크림, 커피여과지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진행하여 영아가 재료를 탐색하고, 표현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였다. 영아는 여러 가지 재료를 다양하게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수현(2010)은 재료의 탐색은 표현활동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미술활동 시 영아의 감각적인 탐색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입체 표현활동 및 감상활동을 진행하여 영아가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아의 작품을 교실환경에 전시하여 친구와 함께 감상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영아는 전시를 통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과 친구의 작품이 함께 구성된 모습을 감상하면서 친구와 즐겁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민경(2015)은 미술작품의 결과물을 전시해줌으로써 아동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갖는다고 하였다. 영아 작품을 통한 감상활동의 가치를 시사한다.

셋째, 영아들이 미술활동에 보다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영아들이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교구와 재료를 준비하여 미술영역의 환경을 다시 재구성하였다. 영아는 새로운 재료와 교구에 흥미를 보이며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영아와의 상호작용 시 간혹 영아의 표현에 가치 판단적인 표현을 하며 사실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연구자는 미술활동을 실행하며 영아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영아 미술활동 시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추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영아 미술활동의 교수 및 학습방법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만 2세 사랑반의 미술활동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영아의 변화

영아를 대상으로 미술활동을 개선함으로써 만2세 사랑반 영아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영아가 재료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다양한 감각기관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탐색하였으며, 미술영역에 흥미가 없던 영아도 연구가 진행되면서 관심을 보이며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은선(2005)은 재료에 대해 충분히 탐색한 후 표현활동을 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더 다양한

표현을 시도한다고 하였다. 이는 영아 미술활동을 실시할 때 영아에게 재료를 충분히 탐색할 시간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표현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미술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던 영아들이 교사와 함께 표현하고 상호작용하며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교사의 개입을 점차 줄이고 영아의 표현을 격려하고 존중해주자 영아는 교사와 함께 하는 미술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미술활동 시 교사는 아동들에게 믿음을 주고, 자신감을 먼저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김미경(2008)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따라서 영아 미술활동을 진행할 때 교사가 영아와 함께 상호작용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영아가 스스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연구자가 영아의 표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영아의 노력을 인정해주자, 영아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 영아가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즉 영아는 친구의 표현에 관심을 보이며 모방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사랑반의 영아가 적극적으로 미술 활동하는 모습이 많아질수록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더 많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 2. 제언

본 연구자는 사랑반에서 이루어지는 미술활동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만2세 사랑반 영아의 미술활동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사랑반 영아를 대상으로 학급의 담임인 연구자가 미술활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한 연구이다. 하지만 만 2세 영아의 미술활동 개선의 실행연구로 연령이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 개선된 미술활동의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미술활동에 대한 사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영아 미술활동에서 교사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아 미술활동 시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고, 연구자도 실제 미술활동을 실행하면서 영아의 사고를 자극하는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따라서 영아 미술활동 시 교사의 적절한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가종석(2016).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숙자(2008). 미술재료 탐색활동이 유아의 입체표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숙현 외(2006). 영아미술교육. 경기: 21세기사.
- 권미혜 외(2012). 감각을 활용한 미술교육이 만 2세 영아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미디어 연구, 11(1), 1-23.
- 경민성(2013). 유아 미술교육에 대한 실태 및 교사 인식 조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2007). 그리기 활동 시 교사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미술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아(2014). 영아를 위한 과정중심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25 ~ 36 개월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란(2015).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영아의 언어 및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2016). 만다라 미술활동이 만 3세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천(2014). 질적연구방법론1.Bricoleur,2판.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김은영(2014). 만 2세 영아반 미술놀이영역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자희(2013).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지(2016). 사립유치원 방과 후 미술활동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요구:

- 전라북도지역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가영(2015).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미술활동 결과물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맹선미(2016).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근주(2012). 미술이 아닌 영아미술. 서울: 창지사.
- 박순자(2010). 협동미술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적응행동 기술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슬기(2013). 오감발달재료를 활용한 영아미술 프로그램 개발-25~36개월 영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덕(2003). 아동미술의 이해. 순천제일대학 EDL센터 특별초청강연 2003-1
- 박은선(2005). 미술재료 탐색활동이 유아의 입체 표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혜경(2016). 유아를 위한 자연물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경희(1997). 21세기를 위한 열린 아동 미술교육. 서울: 학지사
- 오연주 외(2008). 유아를 위한 미술 교육의 통합적 접근. 서울: 창지사.
- 오진선(2016). 영아미술교육에 대한 교사인식과 운영현황 및 지도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이, 조경자(2015). 재료중심의 영유아 미술교육. 서울: 동문사.
- 유성지(201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미술활동 운영실태 및 요구조사.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혜숙(2004). 영유아를 위한 미술교육.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사이버 강의 16.
- 유혜숙(2013). 감각적 탐색 미술놀이가 영아의 그리기 태도와 능력에 미치는

-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수(2006). 탐색·표현·감상의 통합적 미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연(2016). 3세 유아를 위한 감각놀이 기반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금구(2003). 만 1,2세 영아를 위한 미술 교육의 현황 및 교사의 상호작용 유형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혜(2016). 스토리텔링 미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경(2015). 영아·유아를 위한 미술교육. 경기: 21세기사.
- 이명숙(2001). 실행연구를 통한 교육 실제의 개선. 초등교육연구논총, 17(2), 381-408
- 이숙재 외(2002). 유아미술교육. 서울: 창지사.
- 이승미·이승연(2008). 보육시설 영아반 미술활동 운영 현황과 교사들이 인식한 어려움 및 지원요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47-69.
- 이영주(1997). 어린이 미술실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연구. 조형교육, 13, 155-63
- 이은아(2014). 미술 표현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램 연구.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옥, 임수진(2010). 탐색·표현·감상의 통합적 유아미술교육. 경기:정민사.
- 이정환, 김희진(2013). 개정 영유아를 위한 미술 활동. 서울: 도서출판 파란마음.
- 이찬미(2016). 영아 미술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하영(2004). 유아기 아동 미술표현 재료 및 도구의 적절성에 대한 실태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2007). 재료 탐색 활동을 통한 재료 활용 능력 신장 방안 연구-4학년

- 미술과 입체표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경희(2016). 유치원 학부모의 유아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 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소희(2015). 미술교육에서 오감체험을 통한 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 유아기 아동(3세-7세)을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성은(2011). 유아 미술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교육실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인경(2006). 미술표현활동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현(2016). 유아의 평면 미술에 나타난 표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보미(2013). 명화를 활용한 미술활동이 유아의 그림표현능력 및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숙영(2012). 그림책을 통한 협동미술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진(2016). 영아반 교사들의 협력적 실행연구:그림책 읽기 활동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STRACT

This is the study based on the action research of art activities over 2-year-old infa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fant”) conducted by a teacher in charge of Sarangban cla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ass”) at Heemang Nursery Fac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effective way of art activity management of the Class by overseeing changes of teachers and the Infant after implementing designed solutions to problems of the current art activities. In line with the purpose, I have set 3 subjects specified hereunder.

1. What are the problems of art activity of the Class?
2. How is the practice of art activity at the Class?
3. What are the changes of the Infants during art activity in the Class?

The action research is conducted by the teacher of the Class to enhance addressed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searcher. During 18 weeks, from 16 May 2016 to 18 Sep 2016, repeated planning and evaluation over the Infants have taken place to enhance art activity.

The research consists of 3 steps - first, addressing problems and deriving solutions, second, initial implementation of the solution and evaluation and third, renewed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Every week, the researcher wrote journal to analyze and organize art activities.

The materials of the research were video, journals and photos taken during art activities of the Class.

The summary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ly, the passive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and low interest on arts of the Infants were the problems of the art activity.

Secondly, during initial implementation, I have restructured art activity as the environment that can bring sensuous exploration with familiar materials. The Infants started showing curiosity by navigating familiar materials. With the environment that can experience art, the Infants have actively shown more curiosity on the art activity. During renewed implementation, I have repeatedly restructured the surroundings and provided activities with art using various materials and three-dimensional expression and appreciation. Reconstitution of the surroundings was based on the nature of ongoing activities and reaction of the Infants. The Infants have shown curiosity on environment changes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Furthermore, the infants were willingly navigating materials and the positive interaction within peer group has increased.

Lastly, the changes during the art activity enhancement were the Infants' showing more interest on materials and expressing it with teachers. Spontaneous expressions of the Infants were spotted and interaction between peers was enlarged.

## <부 록> 생크림 그림 그리기

활동명	생크림 그림 그리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크림을 오감을 이용하여 탐색한다.</li> <li>· 생크림을 이용하여 표현한다.</li> </ul>
표준 보육 과정 관련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요소에 호기심 가지기</li> <li>· 신체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감각 기관 활용하기</li> <li>·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단순한 미술 경험하기</li> </ul>
활동 유형	소집단 활동
활동 자료	생크림 거품, 검은색 비닐 큰 것, 물티슈
활동 단계	활 동 내 용
도입	<p>1) 생크림 거품을 탐색한다.</p> <p>t: (생크림 통을 보이며) 이 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p> <p>t: 무슨 소리가 들리는 지 선생님이 한 번 흔들어볼게. 어떤 소리가 들리니?</p> <p>t: 00이도 한번 흔들어 볼까? 어떤 소리가 들리니?</p> <p>t: 통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 거 같은데 소리는 잘 들리지 않네. -생크림을 짬다.</p> <p>t: 선생님이 통을 눌러 볼 테니 무엇이 나오는 지 보자. 어떤 것이 나오니?</p> <p>c: 거품이요.</p> <p>t: 하얀 거품이 나오네. 너희 케익 먹어본적 있지? 케익을 만들 때 쓰는 생크림이 거품이 되어 계속 나오고 있어. 00이도 눌러보겠니?</p>

	<p>t: 생크림은 어떤 냄새가 나니? 한 번 맡아볼까?</p> <p>2) 생크림을 만지며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린다.</p> <p>t: 손으로 만져보자. 어떤 느낌이 드니?</p> <p>c: 부드러워요./ 말랑말랑해요.</p> <p>t: 정말 부드럽지? 거품을 손으로 쭈욱 눌러볼까?</p> <p>손가락으로 콧 찍어보자.</p> <p>손으로 비비면 어떻게 되니?</p> <p>손 안에 거품을 넣고 꼭 쥐어보면 거품은 어떻게 되니?</p> <p>손가락으로 동그라미도 그려보자.</p> <p>- 교사는 영아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한다.</p>
전개	
마무리	<p>4) 생크림으로 놀이한 느낌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p> <p>t: 오늘은 생크림으로 그림을 그려보았어. 생크림을 만졌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니?</p> <p>t: 생크림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어땠니?</p>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는 영아가 생크림을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li> <li>· 영아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한다.</li> </ul>